

전쟁과 학살이 계속되고,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2년 5월 7일 (토) 제 1872호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현재 지구촌의 어둠은 반드시 걷힌다!

CT, 크레이그 키너 교수, 우크라이나 전쟁안 '우주적 악' 실체와 극복 성경적으로 설명 소개

2022년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시 한번 폭력적인 악의...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은 전쟁을 야기시키는 죄악이다. "너희...

에즈베리 신학교 성경학 교수, 크레이그 키너(Craig Keener)...

니엘의 기도에 대한 대답을 미루었다; 그 뒤로 알렉산더 제국의...

키너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성경이 묘사하는 "열국의...

그리스어로 번역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위...



우리의 왕 예수께서 이미 오셨기에, 사탄은 패배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학자들은 종종 2차 세계 대전의...

고 사상자는 속출했다. 이와 같이, 최후의 적인 사망...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예수께서 이미 하늘의 통치자들과...

의 영들 위에 거행된 즉위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



어머니들 모두 VIP 되는 주일

'2022년 '어머니주일' 교회 모든 여성이 축하와 감사를 받는 축제의 날 만들기 노하

'라이프웨이(LifeWay) 리서치에 따르면, 어머니날은 일 년 중 교회...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다른 방법으로 방문자들과 교인들의 자녀에게...

1. 모든 여성을 위한 어머니날... 있을 것이고, 이런 여성들 역시 어머니날 축하와 감사를 받아야...

Profiles of three speakers: 김성국 목사 (2면), 조운철 목사 (4면), 박성현 박사 (8면)

월드미션대학교 캠퍼스온라인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말씀가르기의소리

2022년 한미장로교 장학재단 장학생선발공고

2022년 한미장로교 장학재단 장학생선발공고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2022

발행인 칼럼

“한 줄만 주옵소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주변에서 그런 일은 많이 없었다. 두 번씩이나 걸린 경우를 말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랬다. 작년 초에 covid19에 걸려 심한 고생을 했다. 그때 생사(生死)를 넘나들 정도는 아니었지만 죽음의 문턱이 먼 것이 아님을 엿보긴 했다. 얼마 전에 오미크론이란 이름으로 코비드가 두 번째 찾아왔다. 가까이 만났던 사람 중에 오미크론 확진을 받은 사람이 있어 나도 자가 검사해 보았다. 진단 키트에 양성반응을 의미하는 두 줄이 보였다. 서둘러 격리의 자리로 물러났다. 그런데 그날 다른 소식이 들렸다. 곧 아흔이 다 되어 가시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다. 여러 정황상 필자가 집례를 해야 했다. 자녀 중에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으로 각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많아 천국 환송예배에 수백 명이 장례식장에 참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확진 판결을 가진 필자가 그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다. 대면으로 참석을 못했어도 집례는 했다. 유가족과 모든 조문객은 장례식장을 가득히 메우며 앉아 있었고 필자는 교회에서 zoom으로 집례를 한 것이다. 문제는 그다음 날 하관예배였다.

“한 줄만 주옵소서” 하관예배가 있던 날 이른 아침 필자는 자가 검사를 하면서 기도하였다. 양성 반응을 가지고 zoom으로 드릴 수 없는 하관예배를 집례 한다는 것은 필자부터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아무리 그래도 양성반응을 가진 지 삼일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한 줄, 음성 반응을 달라는 기도는 너무 이른 기도였다. 조마조마하게 바라보던 자가 키트는 그 표시가 한 줄에서 멈추었다. 믿기지 않은 음성반응이었다. 하관예배는 당당하게(?) 집례 할 수 있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한 줄이면 충분했다. 아니, 반드시 한 줄이어야 했다. 신앙생활도 한 줄이어야 한다. 이 세상에 수많은 줄이 있다. 사람들은 이줄 저줄 여러 줄을 움켜잡는다. 여러 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러 줄이 오히려 그 줄을 잡은 자를 얽어매고 낭패케 한다. 우리는 다르다. 한 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건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과 생명의 닻줄이시기 때문이다.

모든 배에는 닻줄이 있다. 닻줄 하나에 배의 운명이 달려있다. 아무리 험한 풍파가 물려와도 닻줄이 든든하면 배는 안전하다. 닻줄을 영어로 앵커(anchor)라고 한다. 앵커는 세상의 뉴스를 전하는 자에게 붙여졌다. 앵커가 전하는 소식에 세상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앵커의 말에 따라 평화를 누리기도 하고 흔들거리기도 한다. 앵커가 여럿이요 똑같은 사건에 말하는 내용이 각기 다르다면 세상의 혼돈은 멈출 수 없다. 전쟁과 전염병이 몰고 온 세상의 혼란은 무엇으로 멈추어질까? 여러 줄을 붙잡고 혼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는 불쌍한 인생들 그리고 지도자들. 인류를 살릴 단 하나의 앵커, 예수님이 아니면 이 세대는 더 깊은 수렁에 잠길 것이다.

며칠 있으면 필자가 속한 교단의 총회가 시카고에서 열린다. 몇 년 만에 대면으로 열리게 기대감과 설렘이 크다. 비슷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최근에 각 교단의 모임이 있었고 또 있을 것이다. 수많은 교단의 최고 이슈가 무엇일까? 아무것도 시급하지 않다.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모이는 지역과 상황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 예수님만 붙잡으면 된다. 그리고 외치는 것이다. 오늘의 인류가 맞닥뜨린 난제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그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누구에게나 그 어느 시대나 유일한 구원의 한 줄이시라고.

분별력 있는 건강한 아이 만들기

치치러더스کم, 앤드류 린더 목사의 성이 왜곡된 세상에서 아이 양육 노하우 제시

깊은 산 속에서 사는데 아닌 이상, 우리의 거의 모든 일상과 세계는 성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 돌아보면 성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주제와 이미지들은 모든 구석 구석에 널려져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 차렸다면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일 것이다. 물론 아이들은 이미 곳곳에서 성에 관련된 표현들을 보며 자랐기 때문에 어떤 다른 미묘함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는 더 잘 안다.

엄마와 아빠가 수퍼볼을 보려고 애쓰는 문화 속에서, 그리고 이상한 성적 이미지나 메시지가 아이들의 프로그램이나 영화안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모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린이 사역 전문, 앤드류 린더(Andrew Linder, <https://godlyparent.com/> 운영자)목사는 성이 왜곡된 세상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하는 지를 제시한다(Raising Spiritual Kids in a Sexual World).

우선, 우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우리는 미디어를 조심해야 한다. 토요일 아침에 텔레비전 앞에 아이들을 앉혀두고 그들이 무엇을 볼지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할리우드는 가족 이야기를 잃어버렸다.

우리 아이들은 자극적 문화를 분별하기 어렵고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부드럽기에 더욱 감동받기 쉽다. 아이들은 기준을 부여 받아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어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는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혹은 “글쎄요,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겠죠”라며 그저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키우

1. 아이들의 미디어 조절 (Media Diet)을 의식적으로 지켜보기

아이들이 학교에서 보내는



정신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무것도 현실에서 멀어질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은 성적 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

수 있도록 항상 문이 열어두는 '지속적인 대화'여야만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절대 먼저 질문하지 않기때문에, 아이들이 문을 두드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편리하게 답변을 찾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더 많은 다른 자료들이 있고 대부분은 버튼만 클릭하면 얻는다.

부모님 중 일부는 자라면서 집에서 성관계 문제에 대해서 개방하지 않고도 그 문제를 펼쳐버릴 수 있었지만 요즘 시대에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 부모들이여,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성에 대한 문제들을 집 안에서 이

우리는 성이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마주한다.

아이들은 성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보다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성이 왜곡된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마주한다. 학대, 음란물, 그리고 성적인 내용의 미디어 포화로 인해 아이들은 성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자라고 있다. 아동이 음란물에 처음 노출되는 평균 연령이 이제 8세라는 연구 결과를 보면 이 문제는 포기할 수 없다.

아이들은 성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에 대한 세상의 관점은 왜곡되어 있고 위험하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성적인 죄를 피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음은 몇 가지 제안 사항이다.

시간보다 TV와 인터넷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문화에서 우리는 아이들이 보고, 듣는 것을 보호해야 한다. 아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 자신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것에 대한 욕구를 발달시킨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욕구를 배양하고 건강에 해로운 방법은 줄이게끔 도와야 한다.

2.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많은 기독교 가정은 인간의 섹슈얼리티 문제를 금기시킨다. 우리가 자랄 때 성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은 가정의 방식이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일부 부모가 아이들이 섹슈얼리티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와 관련된 문제들이 자녀의 마음과

에 섹슈얼리티에 대하여 생각한다. 그리고 그들은 답을 원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부모로부터 답을 발견해야만 한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해야 한다.

몇몇 문화들은 아이들에게 불건전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역시 저절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며,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에서 전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 때에 침묵을 지키면 아이들은 무심결에 듣고 있는 다른 목소리를 훨씬 더 크게 듣게 된다.

이러한 주제의 대화는 그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질문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야기하는 개방적인 정책을 펼칠 때다.

3. 문제에 대해 정직하라

성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자녀에게 경고하라. 아이들이 당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할 때, 완전히 정직하고 솔직하게 최선을 다하라. 아이들에게 들려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들은 이미 어딘가에서 그것에 대해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당신 자신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실수와 결과로부터 알게 된 실제 사례들을 제공하라.

미래 세대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성의 문제에 대해 씨름을 해야 할 아이들이다.

(9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김재상 ■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대표)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23, July 9, and Nov 26.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 is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남가주 목회자 세미나
한장으로 관통 하는 성경의 예배사

2022. 5. 18(수) 오전 11시

장소 : 미주 양곡 교회
51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연락처: (213) 505-1947 류달영 목사

강사 :



이정현 목사
(한국 대산족 교단 총회장)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	--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촌의 어둠은...

(1면에서 계속)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분열에 대한 승리는 심지어 우리 삶의 대인 관계 영역이라는 영적전쟁에 있어서도 파급 효과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4장에서 악마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진실함으로 우리의 분노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25-27절)고 말씀한다. 에베소서 6:10-20에서, 영적 전쟁은 진리, 믿음, 그리고 의라는 방어용 갑옷을 입는 것과 더불어, 적대적인 영토를 침략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 즉 복음의 사명까지 포함하고 있다.

나는 가끔 형제자매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꾸짖고 명령함으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 하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런 식의 활동은 우리의 역할을 오해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위에 올랐고, 그렇다, 언젠가 우리는 악한 영들을 심판할 것이지만, D-데이와 V-데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성경은 명백하게 공중 권세 잡은 영들에 저항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면서(베드로후서 2:10), 동료 천사들도 하나님의 권위가 부여될 때에만 그들에게 맞설 수 있음을 지적한다(베드로후서 2:11, 유다서 9절).

천상의 힘을 무너뜨리려 하

는 것은 이 땅을 더럽히는 악마를 땅에서 내쫓는 것과 다르다. 우리는 지상군이 공기군이 아니다. 이 말은 우리가 우주적 차원의 영적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맡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현재 바람이 즉각적 결과로 충족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다니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이었다(다니엘 10:12). 그러나 다니엘은기도의 응답을 받기 전 3주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다(10:2-3). 하나님께서는 제국이 세워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미래는 그들에게 속해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셨다.

요한계시록 역시 같은 그림을 보여준다. 사단은 세계 제국의 집승인 바빌론 뒤에 서 있다. 하지만 미래는 매춘부 바빌론이 아니라, 신부인 새 예루살렘에 달려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영적 세력이 나쁜 존재는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하나님께서는 현재 세상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성경은 기도만이 전쟁과 분쟁의 시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게 이끈다.

아픔은 형 에서의 무장 부대와 만나기 전에 천사와 밤새 씨름했다. 후대 랍비들은 그 천사가 예뻐의 수호천사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

님 자신이였다(호세아 12:3-5). 그러나 적어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분쟁이 임박한 땅에 변화를 가져온다고 랍비들이 주장한 것은 옳았다.

같은 교훈이 모세가 손을 들어 아말렉과의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었을 때도 나타난다(출애굽기 17:11-13). 이 땅에서의 우리의 행동은 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에베소서 6:12, 6:10-20, 누가복음 10:17-18도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힘이 당연히 적대자들의 힘보다 우세하다. 엘리사의 시종들은 하나님께서 불 병거로 가득한 산을 보도록 눈을 뜨게 했을 때, 비로소 그 교훈을 배웠다(열왕기하 2:16-17). 그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으로 적군의 눈을 멀게 하여, 대가를 지불 해야 하는 인간의 전투 대신 평화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천군들이 다윗을 위해 행진하는 소리를 듣게 하였을 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셨다. 또는 또 다른 전쟁 이야기도 있다(사무엘하 5:24, 역대상 14:15).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여호와와 군대 대장을 만난 후 승리를 거두었다(여호수아 5:13-15).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다

니엘서에서는 오만한 제국들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는 인질들이 지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께 소중함 존재임을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하였다(다니엘 10:11).

이 공통의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최종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지만, 그 와중에도, 이 땅에서의 전투는 계속된다. 그리고 개인의 삶 역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한 자들이 세우는 계획보다 더 힘 있는 것은 바로 의인의 기도이다.

고백하건대, 성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이런 주장들은 집단적 고통의 시기에 나에게 꽤 공허하게 들렸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성경을 진정 믿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낸다. 현재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곳곳에서의 분쟁을 통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우리는 아직 적들이 예수의 발 아래 온전히 무릎 꿇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천사들과 세상 권세가 모두 그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 즉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전쟁의 마지막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 우리는 그 진리 속에서 힘을 누릴 수 있다.

어머니들 모두 ...

(1면에서 계속)

2. 진심이 담긴 선물

많은 교회가 어머니날, 교회에 참석하는 어머니들에게 그들의 사랑에 감사하며 선물을 줄 것이다. 우선 이 선물을 꼭 아이가 있는 어머니가 아니라도 모든 여성에게 드려야 한다. 비싼 선물일 필요는 없다. 꽃이나, 초콜릿 등이 선물로 많이 사용되지만, 교회 예산이 허락한다면 예배 후, 패티큐어나 마사지 이용권을 선물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멀티미디어를 이용

어머니날, 설교를 통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감사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방법 이외에도,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는 영상을 예배에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회 어린이들과 인터뷰 영상을 찍기 - 시간과 물적 자원이 허락한다면 교회 어린이들과 함께 짧은 인터뷰 영상을 만들라. 꼭 최첨단의 비싼 장비일 필요는 없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로도 좋은 인터뷰 영상을 찍을 수 있다. "엄마를 사랑하는 이유는? 엄마랑 함께 하는 것 중 가장 재미있는 것은? 엄마가 하는 행동 중 우스운 것들은?" 이런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하고 영상을 찍어보라.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대담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리고 이 영상을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라.

*어머니날과 관련된 영상 - Sermon Spice, Worship House Media 등에서 영어로 제작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비디오를 구입할 수 있다. 번역하고 자막을 넣어서 어머니날 예배에 함께 봐도 좋을 것이다. 상업적으로 제작되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감동적인 영상들

몇 개 소개하겠다.

4. 감사의 식사

교회의 모든 여성에게 어머니날 예배 전이나 후에 식사 대접하는 것을 고려해보라.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있는 엄마에게 교회에서의 대접하는 어머니날 감사 식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 어머니날이만큼 교회의 남성들, 특히 남신교회나 청장년회가 주회를 하여 여성들 모두에게 감사의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약 교회 여건상 혹은 재정상, 식사를 준비할 수 없다면, 어머니날 커피숍을 열어서 교회의 모든 여성에게 맛있는 커피와 후식으로 감사를 표현해보자.

5. 사진 부스

대부분의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

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서 잘 차려입고 사진 찍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부활 주일처럼 대부분의 가족이 어머니날을 위해 잘 차려입고 교회에 왔을 때, 가족들이 예쁜 사진을 찍도록 사진 부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교회의 어머니들을 축복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하다. 구급이나 핀터레스트에서 어머니날 사진 부스(Mother's Day Photo Booth)라고 영어로 검색하면 많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진 잘 찍는 사람에게 어머니날에 자원봉사를 부탁해 보자. 부스 바로 옆에서 모든 가족의 사진을 즉시 인쇄하거나, 행사가 끝난 후에 이메일로 사진을 전송해주라. 아이들이 있든 없든 간에 사진 부스는 모든 가족을 위한 것이니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어머니날을 축하하는 방법이



시론

예수쟁이의 기본과 원칙



은화곤 목사

(기독교 평화포럼 대표)

『미국의 유명한 햄버거 체인점 인앤아웃은 '시대착오적인 햄버거 가게'로 불립니다. 경영업체에서 신메뉴를 쏟아내는 동안 인앤아웃은 세 가지 햄버거 메뉴로 74년째 장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그 흔한 자체 주문 앱도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경쟁에서 밀릴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콜로라도주에 매장을 오픈하자 고객들이 14시간을 기다릴 만큼 엄청난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같은 성공의 배경에는 '화려한 비즈니스 전략보다 기본에 충실하는 게 곧 혁신'이란 경영철학이 있습니다. 1948년 스나이더 부부의 손에서 탄생한 인앤아웃,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매장으로 시작했지만 '맛과 품질이라는 기본에 충실하자'는 경영철학에 신규 매장은 신선한 식자재를 배송할 수 있는 곳에만 개설했습니다. 또 신메뉴를 내놓는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맛과 품질을 지키기 위해 메뉴도 크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영철학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직원에게서 최고의 햄버거와 서비스가 나온다는 신념으로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 수준의 급여를 줍니다. 세계 최대 직장 평가 사이트 글래스도어에 따르면 인앤아웃은 2018년 일하기 좋은 직장 4위에 뽑히기도 할 만큼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구글보다 한 단계 높은 순위라고 합니다. 이 경영철학은 패스트푸드점이 파트타임으로 잠깐 일하는 곳이라는 통념을 깨고 직원들이 미래를 거는 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이 주인인식을 갖고 일했고 이는 매장의 매출까지 연결돼 연 매출 1조를 넘기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은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바르고 끝은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융통성이 없다고 혹은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원칙과 기본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떠온 글)

원칙과 기본! 가슴을 울립니다. 제가 그리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일이 원칙과 기본입니다. 의사들은 병든 사람을 잘 고치는 일이 원칙과 기본입니다. 과학자들은 기술 개발에 전념하여 진보된 새로운 문명시대를 열어가는 일이 원칙과 기본입니다.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은 민생을 챙기고 나라를 번성하게 하여 민족의 유산을 후대로 이어주는 일이 원칙과 기본입니다. 목회자들과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일이 원칙과 기본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기본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모두 다 실패하고 이들로 인해 이 세상은 부정이 난무하고 부패하고 분열되고 타락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분열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유 1:19) 반대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는 각기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에 힘써야 합니다. (열 4:3) '논어 학이편'에 보면 "본립도생(本立道生)"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기본이 바로 서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서있는 삶의 자리에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다면 희미한 세상 속에서 분명 나아갈 길이 선명하게 보일 것입니다. 예수는 항상 공생애의 원칙과 기본의 자리에서 아주 분명하게 서 계셨습니다. 공생애의 시작 메시지인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 4:17)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갔지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길만을 오롯이 지켜나가셨습니다.

(9면으로 계속)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사령

사 임: 편집국장 유원정 전도사
임 명: 편집국장 김재상 목사
 편집부국장: 홍현숙 집사
 편집디자인실장: 이국향 집사
발행인: 김성국 목사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모집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2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8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천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천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크리스천 저널(시카고,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이영선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깨어짐은 필수”

깨어짐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몇년전, 플러턴 지역이 지진과 여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전이 되고 수도관이 파열되고 담장이 무너지고, 벽에 금이 가고, 부엌의 그릇들이 깨어졌습니다. 저희 집도 벽에 금이 가서 문이 잘 안 열리고, 아내가 아끼던 자켓들이

깨지는 등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물질의 깨어짐은 재정적인 피해를 줍니다. 그런데 관계의 깨어짐은 우리에게 더 큰 충격과 아픔, 좌절, 원망, 상처를 가져다줍니다. 그러므로 깨어짐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깨어짐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인

경우도 많습니. 깨어짐은 새 생명 탄생에 필수입니다. 계란 껍데기가 깨어져야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한 알의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 깨어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야 생명이 탄생합니다. 깨어짐은 새로운 창조의 필수입니다. 오래된 집은 먼저 부서져야 재건축할 수 있습니다. 광산에서 캐낸 금광석은 먼저 잘게 부서져야 순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꽃잎이나 풀잎이 처절하게 부서져야 아름다운 향수로 빚어집니다. 깨어짐은 신앙생활에 필수입니다. 자아가 깨어질 때, 더 이상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자아가 깨어져야 예수의 향기를 받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

왕의 삶에도 깨어짐이 있었습니다. 장인 사울 왕에게 쫓기다가 적지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던 다윗은 그곳에서 스파이로 취급될까 두려워 미친 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꿈이 깨졌습니다. 그의 자아가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건져 주심을 경험한 그는 임술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에게 깨어짐은 회복의 시작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부서지고 깨어지셨습니다. 땅에 떨어져 깨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시어

심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 실력, 경험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실패하면 낙심하고 좌절 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자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생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깨어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필수입니다. 마치 향유가 들었던 옥합이 깨져야만 그 안에 있는 향유를 사용할 수 있듯이 자아가 깨어져 쓰임을 받습니다. 작가이자 목회자인 A. W. 토저가 "하나님께서서는 깊이 상처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깨어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깨진 틈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의 찬란한 빛이 밖으로 비치게 됩니다. 우리가 심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작은 예수로 쓰임을 받습니다. 누구도 깨어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어짐은 심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필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필수입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데 필수입니다.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인 인물로서 살아가는데 필수입니다.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에서 영적 지도를 넓히는 데 필수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푸/른/초/장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 교회)



지금 우리는 혼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비유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한 때 이 시대를 데모 만능 시대라고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아랫사람들이 뒷사람을 치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학생들은 선생을 집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집니다. 노동자들이 고용주를 집니다. 불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를 자유 범람 시대라고 합니다. 자유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법 자유 시대라고 합니다. 또는 미친 시대라고도 합니다. 미친 사람 시대입니다. 춤을 춰도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춰도 광태를 부려야 시원한 모양입니다.

있는 자 같이 하라." 우리가 어느 때든지 행하는 것을 조심합니다만 이처럼 혼란한 때에는 더욱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여 행으로 내어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내어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내어 보내는 것 같으니 순하기는 비둘기 같이 하되 지혜는 뱀과 같이 하라." 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주의해서 모든 것을 잘 살피서 지혜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있게

지 않는 것이 아닌가? 를 자세히 살피서 지혜 없는 자 되지 말고 지혜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 혼란한 중에 있는 이 국가가 치안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치안이 확보되면 혼란이 사라지고 백성은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도 혼란하고 또한 종교계! 우리 그리스도교도 혼란합니다. 1) 부흥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광신적이며, 사교적으로 이끄는 사람과 단체가 있습니다. 2) 예수님의 재림이 몇 날 며

“이 시대가 악하니 너희들은 이런 때 기회를 잘 포착하여 이런 기회일수록 시간을 허비 말고 기회를 잘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악한 때일수록 혼란한 때일수록 성도들의 할 일이 많습니다. 악한 시대! 혼란한 시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위해서 크리스천을 보낸 것입니다. 악한 때일수록 빛을 발해야 할 기회입니다.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합니다. 썩은 것이 많을 때 소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혼란할 때 악한 때일수록 크리스천이 빛을 발할 기회입니다. 어떤 때 참 크리스천을 발견합니까? 감감할 때에 별이 잘 나타나듯이 이 혼란과 이악한 때 부패한 일이 많은 때에 참된 크리스천이 나타납니다. 아니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늘 빛을 발해야 하지만 어두운 시대 혼란한 시대 그 빛을 더욱 발할 시대입니다.

복음을 받을만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때를 이용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군중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또 시대가 악하다고 하는 말은! 시대가 악해지는 것은 말세가 되는 증거입니다.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많이 남지 않은 기회에 복음을 전파해야 했습니다. 세월이 악하므로 1) 세월을 아깝시다. 2) 빛을 발합시다. 3) 선한 일 많이 합시다. 4) 복음을 전파합시다. 3. 셋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라고 합니다. (17)

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셋째 번의 성령의 지도에 대해서 주의할 것도 있습니다. 조용히 성령의 지도를 기다릴 때 성령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악마 사탄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런 말이 들릴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들리는 음성이 예수님의 정신에 맞는지! 성경의 교훈에 맞는가? 그 표준에 의해서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 성령의 지도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이 지도해 주어도 순종 안 하면 점점 성령의 음성이 가늘어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성령의 감화가 소멸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도 이 세 가지가 주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주의 뜻을 이해하는 법은 그것이 합법이나? 불법이나? 는 것이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불법은 곧 죄입니다.”(요일 3:4) 불법, 도덕법, 하나님의 법, 교회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약 4:17) 선을 행할 줄 알고 능력도 있는데 안 하면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좇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롬 14:23) 죄 되는 것 즉 불법하지 않습니다. 선행을 거절 합니다. 믿음 아닌 의심 나는 일하지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사업이거나 결혼문제 이거나 여러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이 일을 할 것인가? 2) 성경의 교훈에 합당하냐? 3) 성령이 그렇게 지도하느냐? 4) 이것이 합법이나? 불법이나? 교회법에 합당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묻고 대답하면서 해결하고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1. 첫째는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십시오. 2. 둘째는 이런 때일수록 세월을 아껴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 써 빛을 발해서 선행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3. 셋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해서 주의 뜻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Drjho@hotmail.com

혼란한 시대의 생활 방법에베소서 5:1-21

하는 사람은 이 혼란한 시대에 함부로 주관 없이 남들과 똑같이 행동하거나 남들 하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이 한다고 나도 그냥 따라가겠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활 방법이 지혜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1) 남이 날뛰다고 우리 크리스천은 날뛰지 맙시다. 2) 남이 법을 어긴다고 우리 믿는 이들도 법을 어기지 맙시다. 3) 남들이 잔잡히 살아도 신자는 깨끗이 살아야 합니다. 죽은 고기는 물 흐르는 대로 물에 떠서 다니지만 산 물고기는 흐르는 물 상관없이 폭포수도 뛰어올라갑니다. 함부로 시대조류 따라 흘러가지 맙시다. 이 혼란한 때 어떤 곳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도 사람이 모여들 때 우리는 주의해서 자세히 살피고 경계하고 지혜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고 사건의 정신이 좋다고 해도 그 목적과 정신을 위한 방법이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그 방법이 국가를 해치는 것이 아닌가? 2) 그 방법이 남에게 덕 되

철이라고 믿는 이를 어지럽게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3) 자기만 잘 믿는다고 남을 멸시하여 분열을 일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4) 이 교계의 혼란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세상과 야합하여 세속주의로 기울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크리스천은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이 말며 지혜 있게 해야 하겠습니다. 나무가 좋은가? 나쁜 가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압니다. 1) 그 열매가 어떠한가? 2) 그 동기가 어디 있는가? 3) 그 행동이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잘 살피서 지혜 있게 살아야 합니다. 2. 둘째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16)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 “세월”이라고 하는 말은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끼라”는 말은 “속하다” 또는 “구속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는 때는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크리스천은 소극적으로 악하고 어두운 장소를 피해 다녀서는 안 됩니다. 1) 학생이면 학교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좋지 못한 일을 꾸미면 그 단체에 가담하지 말아야지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학생이 혼란한 중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면서 권면하면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2) 군인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부대에 빛을 발해야 합니다. 3) 믿는 공무원은 관청에서 어떤 선한 빛을 발해야지요! 4) 믿는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빛을 발해야 하지요! 5) 믿는 직공들은 공장에서 빛을 발해야 합니다. 6) 내가 어디서 일하든지 이 혼란한 때를 지날 때 국가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빛을 비취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처럼 악하고 혼란할수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악해질수록 많은 사람의 민심이

다. 인텔리로써 하지 않을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 “이해하라”는 말 있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이해하고 주님 뜻대로 하라는 그 말입니다. 유명한 목회자 Morgan 목사는 주님의 뜻을 알아내는데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누구보다 더 꼭 하나님의 뜻대로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표준 해서 예수님 하신 대로만 하면 꼭 주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하면 실수가 적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는가? 성경을 공부해서 그 성경대로 살면 실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직접 지도입니다. 이레야 하나님의 뜻인지 저래야 하나님의 뜻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

하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풋볼 코치의 필드에서의 기도가 '종교적 행위' 인지 아니면 '강요' 인지 논박 중인 연방대법원 - 미전역이 주목하고 있다!

개인의 종교 표현의 자유 vs. 공립학교의 권리

지난 월요일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경기장에서 기도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에 대한 케이스를 논의했습니다. 대법원 판사들은 그의 종교적 관행(필드에서의 기도)이 고압적(풋볼 선수들을 향한 은연 중의 동참 강요)의 것인지 아니면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종교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박을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열띤 토론 모습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어 뽑히고 반기독교 좌파 이념에 늘 투표를 하는 전력을 가진 Sonia Sotomayor(쏘니아 소토마어) 대법원 판사는 이번에도 자신의 전력대로 논박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번 케이스에 대해 학교 관계자의 종교적 행위가 언제 사적인 행위와 공적인 행위로 고려되는지에 대해 클레멘트 변호사를 압박하며,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사가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이 불법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클레멘트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수업 중의 케이스가 아니었다라고 반박하며, 만일 교사가 자신의 성경을 "수업 시간 시작 전에" 혹은 "수업 시간 후에" 읽으면서 "묵상하거나 거의 들리지 않게" 읽는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표현에 해당되며 미 헌법 1조에 의해 보호받아야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바마에 의해 지명되고 뽑혔던 Elena Kagan 대법관도 케네디 코치의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했습니다. "종교적 행위들에 참여하기 원치 않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는 일종의 과한 압박이며, 일종의 강압이었다."

클레멘트 변호사는 이런 의견에 맞서서, 학교 당국은 수년 전 케네디 코치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에 "강압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왜냐하면 강압한 적이 없었기에), 대신에 "지지" 이슈

들에 대한 우려 (코치를 지지하는 학생들이 많았기에)를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뽑혔던 Neil Gorsuch 대법관은 2000년에 다뤄졌던 Santa F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Doe 케이스를 언급했습니다. 당시 고등 법원은 고등학교 축구 경기 전에 학생들이 확성기를 통해 기도를 하도록 하는 텍사스 마을의 관행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클레멘트 변호사는 이에 대해 언급하면서 케네디의 묵상 기도는 텍사스 산타페 케이스의 상황과 "급격히 달랐다"고 말하며, 산타페 케이스는 확성기와 누가 기도를 하라했는지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더 노골적인 예시와 관련이 있다고 참으로 적절한 지적을 했습니다.

클레멘트 변호사는 케네디 코치의 행동을 프로 운동 선수들의 경기 전 십자가 성호를 긋거나 터치다운 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동과 비교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은 개인적인 행동으로 인식되어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종교분리 연합' 단체에서 주장하는 공립학교의 권리

학교 당국을 대표해서 변론에 나온 Americans United for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대표적인 반기독교 단체 중 하나)의 법적 고문인 Richard B. Katskee은 말하길, "케네디 코치의 행동은 학생들에게 그의 기도에 동참해야 하는 압력을 주었으며 코치 스태

프들 간의 분열을 조장했고, 학교 직원들을 향한 비판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혼란에 휘말린 풋볼 선수들을 지지하게 만들었다."며 케네디 코치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조지 H.W 부시에 의해 지명되어 뽑힌 Clarence Thomas 대법관이 Katskee에게 질문하기를, '고등학교 풋볼 코치가 자신의 개인적 이념을 아이들에게 주장하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표정으로 미국 국가를 학생들이 함께 불러야 하는 때에, 오히려, 아이들에게 "인종차별" 반대를 표현하도록 무릎을 꿇는 행동을 취하게 하는 것이 정부 입장 표명(government speech)에 저촉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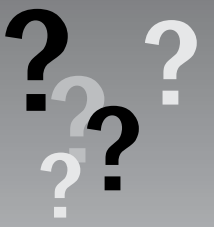
Katskee는 잠시 멈칫하면서 답하길, "국가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코치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필드 중앙으로 나가서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정부 입장 표명에 해당한다."라고 답했습니다.

Clarence Thomas 대법관은 반문하기를, '어떻게 같은 맥락의 케이스인데, 한 케이스는 개인적인 행동으로 고려될 수 없고, 또 다른 케이스는 공공 행위와 공공 성명이며 정부 입장 표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해보라'고 Katskee에게 요구했습니다.

1. 케네디 코치 케이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동안의 법적 분쟁 여정과 2. 다른 법적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존 케네디 풋볼 코치 케이스의 중요성 3. 캘리포니아의 약법 AB2223 - 출산 후, 어떤 이유든 아기가 무참히 죽어도 경찰 조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결국 아기 살인을 허용하고 그 살인을 덮어 버리게 하는 AB2223의 2번째 공청회와 CA Lobby Day에 대한 것은 Tvnex.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실버치사랑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요즘 성령님에 대해 성경공부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내 삶에서 느끼며 그 분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하버에서 이희은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믿는 순간 보혜사로서 우리 속에 찾아오셨고 이미 내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계시며 또한 우리 옆에 계시며 또한 구하면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시고 임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한번 경험한 은혜 체험도 필요하지만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성령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셨는데 제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LA 남쪽의 샌디에이고 가는 길에 산 주안 카피스트라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관광지인데 비둘기와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그야말로 원색적인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비둘기를 만지려면 비둘기에 가까이 가면 비둘기는 날아가 버립니다. 내가 할 것은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팔을 내밀고 손바닥을 펴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가만히 보면서 5분, 10분,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기다리고 있으면 날아다니는 비둘기가 어느새 손바닥에 와서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그때 살그머니 잡으면 비둘기가 쉽게 만져지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내 열심이나 열정만 가지고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미 내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환영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조용히 손을 벌리고 기다려보십시오. 그러면 비둘기가 내 손바닥에 내려앉듯이 성령님께서 어느새 내 마음에 임재하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노력으로 성령님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히려 나를 붙들어 그분의 뜻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허밍버드 라는 새가 있습니다. 왕영거린다는 뜻에서 허밍이라고 이름을 지은 새입니다. 한국말로로는 벌새입니다. 벌같이 작은 새라는 말입니다. 길이가 6 CM 정도 되는데 1초에 50-70회 정도로 정신없이 날갯짓을 합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날갯짓을 하지만 오래 못갑니다. 그 새는 4년 안에 거의 다 죽는다고 합니다.

반면에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90 CM 정도 되는 아주 큰 새입니다. 날개를 펴면 약 3.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 주체에 무려 80세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바트로스는 폭풍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 바람 끝에 올라가 글라이딩을 합니다. 나는 것의 90% 이상을 바람의 힘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날갯짓은 기껏해야 1% 미만입니다. 온 몸을 바람에 맡깁니다. 그래서 쉽게 날고 멀리 날고 오래 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알바트로스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늘 성령님께 이끌리어 사셨고 기도 하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사모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만이 아니라 차 타고 갈 때나 주부가 부엌에서 설거지 할 때나 어디서나 성령님을 찾으면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 일도 내 힘과 노력보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사역을 하면 기쁘게 주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의 목회도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84년 역사와 전통을 지닌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보수적인 복음주의 신학교(ATS정회원)
3.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나 수강할 수 있는 100% 온라인 프로그램
4. 선교지 신학교나 현지 대학교에서 강의 가능한 학위 프로그램
5. FAFSA(연방정부 장학금) 지원 가능(영주권자 이상) 및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 목회전공
- + 선교전공

2022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일정

1월10일 - 3월6일
DI8310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기독교 선교역사)
*** 3/7/2022-3/13/2022 (봄방학)

3월14일 - 5월8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타문화 지도력개발)

2022년 여름학기 수업일정

5월23일 - 7월17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 D.Min in Ics.
PM 8610 Pastoral Counseling (목회상담)
for D.Min in pastoral

5월23일 - 7월17일
DI8150 Contextualization (상황화)

한국어로 취득할 수 있는 ATS승인 100% 온라인 박사학위과정입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seminary.grace.edu

총장: Dr. Drew Flamm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E-mail: gtskoreanstudies@grace.edu 카톡 ID: KoreanGTS

대표전화: 574-372-5100 (ex 6335), 574-334-7980(한국어)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영원한 성전이란?”

최근에 이찬수 목사가 예장 합동 전국 기도회를 개최한 새에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 예배당의 화려한 모습과 또한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앞다투어 예배당을 크고 화려하게 짓는 모습에 반응한 것이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

다. 특히 새에덴 교회 목사는 더 큰 예배당에 비해 자신의 교회는 구멍가게 밖에 안된다고 크기를 비교한 후에 나온 말씀이라 성도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한국교회는 보이는 예배당의 크기에 집중하여 더 크게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서로 경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의 본연의 본질은 놓쳐 버리고 복음 사역보다는 겉 모습과 치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부패 망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을 잘못 적용하여 이스라엘 시대의 성전 건물과 신약 시대의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아니 그런 기본적인 성경 교육조차 안된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된 안타까운 모습의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유기적인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보이는 건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교회의 능력을 혼란케 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밀려들여간 것입니다.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는 교회는 결국 힘없이 도태되고 맙니다. 분당 우리교회가 원하던 원

하지 않은 이미 대형교회가 되었지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는 모습에서 그 래도 희망을 봅니다. 또한 다른 교회에서 옮겨오려는 수평 이동의 성도를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교회를 쪼개어 여러 교회로 나누는 결단 있는 모습이 앞으로 후배 목회자들에게 진 정한 목회를 보여주는 조그마한 빛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아마 이렇게 살아있는 교회들이 여전히 이곳저곳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서구 교회들을 통해서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서 크게 지어졌던 예배당이 몇 세대도 지나지 못해서 빈 폐허 건물이나 숲집이 되어버리고만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몇 년 후에는 한국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 동남아 교회들이 한국교회를 배우려는 열풍이 대단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가 가졌던 순수성, 희생정신, 뜨거운 열성을 보고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교지의 교회들조차 한국교회를 한물간 교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구 교회를 한물간 교회로 여겼듯이 한국교회가 벌써 그런 대상이 된 것이 너무 씁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왕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하신 말씀이 네가 아닌, 너의 후손이 영원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후손이란 솔로몬 왕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진정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것을 선포하셨고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이라는 건물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어떠한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운 예배당 건물은 우리의 예배와 신앙 교육과 교제의 필요만 충족시켜 주면 그 이상은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성전은 우리 안에 지어졌으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영혼들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서 달려가는 미주의 한인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g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어린이를 교회로 돌아오게 하려면...

코로나19 사태가 ‘팬데믹(세계적 유행)’에서 ‘엔데믹(주기적 유행)’으로의 전환기를 맞으면서 사회 전반에 불어 닳았던 비대면의 일상화가 대면의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회 또한 대부분 현장 예배를 재개했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제나 매그루더 라이프웨이즈 전략 디렉터는 “미취학 아동들은 팬데믹 이전의 교회와 예배 환경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면예배 현장으로 돌아오는 것에 불안감을 느낀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엔데믹 시대에 어린이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5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라이프웨이리서치는 가장 먼저 ‘이름을 기억하라’고 조언했다. 매그루더 디렉터는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해두고 교회에 돌아오자마자 이름을 불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환경에서 아이를 맡기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도록 부모님의 이름을 알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름표 달아주기’ ‘서로의 이름 기억하기 게임’ 등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제안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또래 친구와의 연결’과 ‘흥미로운 집단 활동’이다. 매그루더 디렉터는 “교회는 항상 아이들을 또래 친구와 연결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어린이 성도가 예배 후 가정으로 돌아갈 때 친구가 생기는 것을 목표로 소통을 연결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또래와 신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교회를 인식하고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양육자가 안다면 가족이 함께 교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가족들에게 공동체 의식 심어주기’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기’를 제시했다. 매그루더 디렉터는 “가족들에게 교회의 목적을 상기시켜주는 것은 그들이 소속된 신앙 공동체에 유대감을 느끼고 돌아가고 싶도록 도울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복음을 명확하게 듣고 응답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라이프웨이는 가정마다 예배 현장으로의 복귀에 대한 ‘적기’가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그때가 언제가 되든 반갑게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름’ 읊 보면 교회가 보인다

한 교회를 이해하려면 교회 이름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교회 이름 속에 지리적 특성은 물론, 언어학적 의미나



교회 구성원들의 생활 양태와 사고방식 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성경 속 교회들은 대부분 지역명으로 교회 이름을 지었다. 고린도교회 골로새교회 데살로니가교회 안디옥교회 에베소교회 등이다. 지역명을 교회이름으로 하는 이유는 지역 복음화(Evangelization) 또는 그리스도교화(Christianization)가 주된 목적이다.

성경 구절을 교회이름으로 정한 곳도 많다. 지역명을 탈피해 ‘-의’ ‘-의’처럼 형용사나 동사형 교회이름도 많이 생겼다. 국제화 시대인 만큼 영어식 교회이름도 잇따르고 있다. ‘토기장이’ ‘온누리’ ‘다솜’ 등 순우리말을 쓴 교회이름도 눈길을 끈다. ‘도토리 키재기’란 말처럼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고 하나님 없이는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도 담았다.

여의도순복음교회나 명성교회, 사랑의교회, 온누리교회, 지구촌교회 등 대형교회의 이름을 차용해 교회이름을 짓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경기 김포시엔 교회이름이 ‘이름없는교회’가 있다. 이 교회 백성훈 목사는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유명해지기 위해 스타 마케팅과 브랜드화 전략을 추구하는 것에 회의를 느끼고 성경적인 교회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성경을 연구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그런 진리의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교회이름에 교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관, 정체성이 담겨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교회 구성원들이 이루고 싶은 소망과 나아가 방향, 실제 교회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중 장로회신학대 교수는 “예를 들어 ‘행복’이 교회이름에 들어간 교인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이웃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사랑’이 교회이름에 들어간 교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당왕성교회 이수봉 목사는 “어떤 이름이든 상관 없지만 반복적이고 세상 성공지향적인 의미를 담은 교회이름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교회명은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교회이름은 첫째 하나님께 함께하심을 나타내면 좋겠고, 둘째는 신앙을 표현하고, 셋째는 바 소망하는 목표가 되면 좋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 되고, 성도가 성도 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이름은 참으로 다양하다. 저마다 의미가 있고 사랑스럽기까지 하다. 심재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명예교수는 “교회이름은 제천 지역 공동체이다. 근대화와 도시화로 지역사회의 흔적이 사라지는 21세기에 지역 기독교인과 믿음의 교제를 이어가는 커뮤니티”라고 설명했다. 서정형 기독교화선교회 대표는 “이름이 복순이면 어떻게 영철이면 또 어떤가.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 가운데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회 아닌 곳 예배 집중하기 힘들어”

개신교인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 기간에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려는 게 집중하기

힘들었다(81.2%)고 생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기기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13.3%에 달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원장 김영주 목사)이 지난 2월 24일부터 여드레 동안 지앤캐리서치에 의뢰해 성인 남녀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다. 기사연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기사연 이ژه홀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혹은 답보하는 한국교회와 청년 담론’을 주제로 학술 포럼을 열고 설문 의미를 분석했다.

첫 발표자로 나선 이민형 성경대 교수는 “코로나 이후 네 차례 진행된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현장 예배보다 못했다’고 답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 (교인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배드리는 걸 어려워한다는 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4월과 12월, 2021년 6월과 지난 2월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각각 53.6%, 51.0%, 53.9%, 52.9%가 온라인 예배의 만족도가 현장 예배보다 떨어진다고 답했다. 이 교수는 “하지만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선택한 온라인 예배로 기존의 주일과 교회라는 시공간에 국한돼 있던 종교의 영역이 일주일 내내 일상 공간으로 확장한 것은 성숙한 기독교인을 양성하는 길이 될 수 있다”면서 “온라인 예배를 일상 영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절반 가까운 개신교인은 코로나 기간 중 목회자에게 ‘예배와 교육, 교제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도입과 활용’(43.3%) 역할을 기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제나 속 신앙과 신학의 비전 제시’ ‘교회의 사회적 책임강조와 실천’ ‘목회적 돌봄’을 기대한 응답자는 각각 24.3%, 20.8%, 9.9%에 그쳤다. 정경일 성공회대 교수는 “목회자와 교인이 접촉할 기회가 사라지면서 목회자에 대한 목양적 기대는 줄고 기능적 역할만 커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코로나, 아직 최악의 상황 아닐 확률 5%이상”

“다음 팬데믹 예방을 위해 세계 보건 기구(WHO) 글로벌 감시망을 발족해야 한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의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이 아직 안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는 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팬데믹이 더 전염성 강하고 심해서 더 치명적인 변이를 만들어낼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럴 가능성은 작고, 나는 파멸과 절망의 목소리가 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이 팬데믹의 최악을 아직 못 봤을 위험성이 5%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게이츠는 또 “코로나19 팬데믹의 교훈은 선제적 계획과 보호 조치가 미래에 닥쳐올 팬데믹을 더 잘 관리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이츠는 이 교훈을 담은 ‘다음 팬데믹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 중이다.

게이츠는 전염병 예방이 뒷전으로 밀려나기 전에 이후 유행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기억하는 지금이 적기라는 것이다.

그는 이를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글로벌 감시망을 발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공중보건 위협을 재빨리 탐지하고 세계 각국 정부를 신속하게 조직화해 미래의 새로운 질병이 팬데믹으로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게이츠는 이 테크포스트(TF)를 가칭 ‘글로벌 전염병 대응·동원’(Global Epidemic Response and Mobilization-GERM) 계획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위해서는 WHO와 그 회원국이 막대한 재정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염병학자·바이러스 연구자 등으로 전문가팀을 꾸려 미래의 잠재적 팬데믹을 파악하고 이를 억제할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 4월 글로벌 강연 플랫폼 ‘TED 2022’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며 “수조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쓸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하위 변이인 BA.2가 기세를 떨치며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 존스홉킨스대학의 데이터를 보면 1일 기준 미국의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한 주 전보다 9% 늘어 5만 4400여명이 됐다. 지역적으로 봐도 50개 주(州) 가운데 39곳에서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는 등 확산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동성애 반대’ ‘글로벌감리교회(GMC)’ 출범

미국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새 감리교단이 창립했다. 동성결혼과 동성애자 성직을 허용하는 진보 교단과 선을 그으면서 향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새 교단에 가입할 지 교계 안팎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현지시간) 미 기독교매체인 크리스채너티투데이 등에 따르면 글로벌감리교회(GMC·Global Methodist Church)가 새로 조직됐다. GMC는 이른바 LGBT로 일컬어지는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트랜스젠더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대표적인 감리교단인 미국연합감리교회(UMC)에서 분리된 교단이다.

UMC는 지난 수 년 동안 LGBT의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 차이로 내부 갈등을 겪어왔다. 결국 UMC는 2020년 기존의 신학적 견해를 고수하는 보수 교단과 나뉠 예정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GMC 출범은 이같은 계획에 따른 결과다.

하지만 예배 형식과 설교 논조 등에 있어서 GMC의 운영 방향은 UMC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GMC 수석 목회자인 캐롤린 무어 목사는 “설교에서 웨슬리 신학을 계속 강조할 것이며, 교회들의 분열로 교회와 결별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돕기 위해 여러 부처와 교회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 연금도 기존의 UMC 연금 관리 기관이 담당한다.

보도에 따르면 GMC 가입 교회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다. UMC 소속의 조지아주에 있는 한 교회는 수 개월이 걸리는 탈퇴 과정을 거쳐 GMC에 가입할 계획이다. 유럽의 한 지역에서는 모든 감리교단이 GMC로 소속을 바꾸기로 했다. LGBT에 대한 입장에 따라 교단 선택권을 주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45. 조운택(1865-1919)

조운택은 1865년경에 평양에서 아버지 조운화와 어머니 양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세례명으로 마리아를 가진 것으로 보아 조운택은 한국에서 개신교 신자였던 것 같다. 그는 결혼하여 1897년에 아들 재운을 낳아 평양에서 거주했다.

조운택은 1903년에 8살 된 아들 재운과 함께 하와이로 이주했다. 홀아비로 적혀 있지만, 아내를 평양에 두고 아들만 데리고 하와이로 향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영어 이름은 Cho Youn Tack 또는 Cho Yun Tack 또는 Chow Youn Taik으로 쓰였다.

하와이로 온 지 4년이 되던 1907년에 조운택이 지방 전도사가 되었다. 그는 1908년에 하와이 카운티의 코나에 있던 코나 감리교회로 파송을 받았다. 그는 1909년까지 약 1년간 섬겼다.

1910년에 미국 연방정부가 실시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44세의 조운택은 홀아비로 한국에서 태어난 15살 된 아들 재운과 함께 하와이군도 마우이 카운티의 라하이나(Lahaina)에서 거주했다. 그는 두 교회를 목회했다. 하나는 라하이나 감리교회였다. 이 교회는 그가 그해 개척한 교회였다. 스톤 한인 캠프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해 인구조사에는 스톤 한인 캠프에는 기혼자와 미혼자 등 여러 한인이 있었다. 37세의 이기훈과 34세 된 부인 이희세, 28세 미혼 김태하, 24세 미혼 박삼용, 28세 홀아비 갈당주, 34세 홀아비 진준순, 29세 기혼자 이두일, 35세 기혼자 주진옥, 29세 총각 김인홍, 30세 총각 이규삼, 32세 총각 이진만, 28세 총각 조성일, 33세 기혼자 안석연, 35세 기혼자 김천운, 26세 총각 신봉순, 27세 총각 김천화, 25세 총각 이성순, 29세 기혼자 김인강, 32세 총각 임진국, 23세 총각 최금봉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라하이나 감리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그해에 만주 하얼빈에서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한 안중근 의사에 기부금을 낸 라하이나 거주 한인이 있었다. 기부한 자들은 안석운, 최호선, 최건복, 최경숙, 최우호, 전종문, 정지장, 정지현,



910년 인구조사

전종순, 한태인, 임봉현, 강봉합, 김저운, 김춘화, 김정숙, 김광선, 김광영, 김경환, 김광노, 김성기, 김성문, 김태은, 김태영, 김택만, 김응철, 김원식, 김영

1931년 연회에서 전도사로 임명, 한국선교회 조직 조국복음화 도와 1913년 대한부인회 조직 등 한인사회 돕기 활발 하와이역사에 남아

수, 고명근, 나금동, 오재원, 박춘경, 박해관, 박철률, 박삼용, 박성근, 박동준, 심금남, 신봉순, 성순영, 서상홍, 손덕신, 송치겸, 송치삼, 송견, 송석만, 양창규, 이지만, 이기원, 이기원 부인, 이경수, 이봉운, 이은구, 이영서, 윤순필이었다. 이들은 많게는 15달러를 기부했고, 적게는 50센트를 기부했다. 이들 대부분이 라하이나 감리교회에 출석한 자들로 보인다.

하와이 한인 이민사 연구소장 이덕희는 2000년에도 조운택이 설립한 라하이나 감리교회가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898년에 일본인 모토조 아카사와 목사가 세운 일본인 교회를 모체로 하는 라하이나 감리교회가 오늘날에도 있는데 조운택이 설립한 라하이나 감리교회가 이 일본 교회에 흡수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운택이 1910년에 사역한 다른 교회는 같은 카운티에 있는 가나팔이(Kanaapali) 한인 감리교회였다. 1911년 7월 26일자 신한민보가 하와이 가나팔이 지방회장 서상홍이 우연히 낙상하여 라하이나 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인데 그곳 동포들이 회의하여 손승운 씨를 서 씨의 간호원으로 택정하였다고 보도했다. 신한민보가 소개한 서

상홍과 손승운이 가나팔이 감리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소개한 안중근 의사 기부금 명단에 가나팔이에 거주한 한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손바우, 손승운, 이준경, 이준순, 이기현, 이명준, 이남, 이두현이었다. 이들 대부분은 가나팔이 교회 교인이었을 것이다.

1911년에 조운택은 마우이섬의 하나(Hana) 교회와 기파후루(Kipahulu) 교회로 파송되어 이들 교회를 섬겼다. 그가 떠나던 1912년 3월에 하나 교회에는 21명의 학습 교인과 19명의 세례 교인이 있었고, 지난 한 해 동안 1명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고, 10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달에 주일학교에는 2명의 직원과 교사가 15명을 가르쳤고, 엠피스 청년회에는 15명이 등록하였다. 500달러에 해당하는 예배당과 250달러에 해당하는 사택이 있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이들 건물을 수리하느라 40달러를 지출했다. 이런 교회 형편에서 조운택이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보면 된다.

그런데 그해 6월 24일에 신한민보가 '특별한 성심'이라는 제하에서 박원백에 대한 아래의 기사를 내보냈다. "하와이 마위 하나에 거무하는 박원백 씨는 본래 열성이 과인하여 공익사업에 힘을 아끼지 않는 지사라. 박 씨는 연전부터 미주 상항 지방회에 입회하고 의

와 N. 아마다와 함께 조운택은 집사 목사가 되는 첫 해 과정을 마쳤다. 그달에 그는 R. 주르부체와 E. 토키마사와 함께 공제 관계 해결위원회 회원으로 선정됐다.

그달에 조운택은 하와이섬에 있는 하갈나우 교회와 힐로 교회와 올라 교회로 파송받았다. 그가 파송받았을 때 하갈나우 교회에는 학습 교인 12명, 세례교인 8명이 있었고, 유아세례교인 1명이 있었으며, 주일 학교에는 4명의 직원과 교사가 23명의 학생을 지도했으며, 엠피스 청년회에 24명이 활동했고, 김이근이 권사로 동역했고, 200달러 가격의 예배당이 있었고, 지난 한 해 동안 5달러를 예배당과 사택에 지급했다.

조운택이 파송받았을 때 올라 교회에는 22명의 학습 교인과 35명의 세례교인과 3명의 유아 세례교인이 있었고, 세 곳에 주일학교가 있어 5명의 직원과 교사가 53명을 지도했고, 엠피스 청년회에 15명이 있었으며, 이정(중)도가 권사로 활동했고, 250달러 가격의 예배당이 있었으며 지난 1년간 예배당과 사택에 37달러를 지출했다.

조운택이 올라 교회를 섬기기 3개월 전인 1911년 12월에 올라 구리반에 거주하는 이정수의 아들 요한이 있었다. 10세 어린자인 요한은 그곳 공립학교 학생으로 하루는 학교로 가는 길에 친

최운기, 이기훈, 이완근, 노태현, 김병순, 방흥돈이었는데 이들도 올라 교회 교인으로 보인다. 그해 12월에 올라 지방회도 기부금을 내었으니 이곳에 지방회가 있었던 것 같다.

힐로 감리교회에서는 백낙현이 권사로 파송받아 조운택은 그와 함께 동역했다. 조운택이 부임하기 1달 전인 1912년 2월에 이곳에 거주하던 류석기가 스페인 여자와 결혼하였다는 보도가 상항에서 발간되던 대도가 보도하였는데 조운택이 그해 3월에 부임하면서 심방하였을 것이다.

1913년 2월과 3월에 걸쳐 일주일간 하와이 선교부 연회가 개최되었다. 조운택은 K. 안자이, S. 토다, 조한식, 임 C.H., 이선일과 함께 집사 목사 2년 과정에 등록했다. 이 연회는 조운택을 하와이섬에 있는 힐로(Hilo) 교회와 올라(Olaa) 교회와 부나(Puna) 교회로 파송했다. 힐로 교회와 올라 교회는 작년에 이어 계속 사역하게 되었으나 작년에 사역한 하갈나우 교회 대신에 그해는 부나 교회를 맡았다. 그런데 힐로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하여 J.W. 와르너 목사가 선교 목사로 파송되었다. 그해 힐로에는 12개의 전도소가 있었으므로 조운택의 발걸음은 들떠 있었다.

1914년에는 하와이섬에 있는 힐로(Hilo), 푸나(Puna), 하갈나우(Hakalau)에 있던 한인교회로 조운택이 파송받았다. 이듬해 조운택이 리온 L. 루프부로 감독에게서 장로 목사가 되면서 오아후 섬에 있는 가하루우(Kahaluu) 교회로 파송되었다. 1년 후 조운택은 오아후(Oahu) 섬의 와일누아(Waialua) 교회로 전임했다. 1917년에 조운택은 오아후 섬의 바람이 부나 아루다온 와일누아(Waialua) 교회로 파송받았다. 이곳에는 작은 한인 캠프가



있었다. 그는 이 교회에서 1919년까지 약 3년간 사역하였다. 1919년에는 오아후섬에 있던 가후구 교회도 맡아 사역하였다.

건강이 좋지 않아 1918년 10월 이후 1년 이상 의사를 찾았던 조운택은 1919년 12월 13일에 와일누아에서 향년 55세로 소천했다. 12년간의 목회 기간 중 짧게 웃음을 보이며 겪이지 않는 동양적 예의를 가졌던 그는 주위의 많은 한인에게 고결한 기억을 남겼다. 아들 조재연은 아버지를 화장하여 한국으로 보내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h4>갈보라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응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850) 423-7700 Fax: (213) 703-9961 6554 W. Desert Inn, Red Las Vegas, NV 89146</p>	<h4>다민족교회</h4> <p>담임목사: 홍귀표</p> <p>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30 수요성경공부: 기도회: 오후 8:00 다민족찬양: 매주(목) 오후 4:00-7:00</p> <p>Tel: (702) 802-1112 estrosses@yahoo.com 6050 W. TOLUHY Ave, Chicago, IL 60646</p>	<h4>몽고메리교회</h4> <p>담임목사: 최해근</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태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 222-0691, 267-471-7777 Fax: (610) 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h4>벅스카운티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동운</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 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 945-1512 Fax: (215) 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67</p>	<h4>벨렐교회</h4> <p>담임목사: 백성중</p> <p>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탄배: 오전 10:00 영 아 베: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 461-1236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kctt City, MD 21042</p>	<h4>보스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장성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영 아 베: 각 구역별로 유지,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 435-4579 www.bostonarea.org 2 Main St, Hplinton, MA 01748</p>
<h4>새생명한인교회</h4> <p>담임목사: 정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목/토) 구역예배: 각 구역별로 한국 학교: 오전 10:20(주일)</p> <p>Tel: (850) 423-9700 Cel: (213) 703-9961 5502 Old Behner Rd, Crestview, FL 32536</p>	<h4>안디옥교회</h4> <p>담임목사: 강준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 749-9829 www.om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h4>일산사제자들교회</h4> <p>담임목사: 전남수</p>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 820-9049 www.jesu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h4>앵커리지열린문교회</h4> <p>담임목사: 유재일</p> <p>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 344-6446 Fax: (907) 344-3182 8200 Branwood St, Anch, AK 99518</p>	<h4>영생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백은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 542-0288 Fax: (215) 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h4>킬린은누리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성경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 635-1842(H), (254) 601-48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h4>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박재영</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 8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h4>타코마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박정호</p> <p>주일 영아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 536-6675 www.tbcomc.org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h4>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L.A.: Tel: (323) 665-0009 lchpress@gmail.com ■ N.Y.: Tel: (718) 886-4400 nycpress@gmail.com info@chpress.com</p>

말씀과 땅 (8) - "다시 쌓은 바벨 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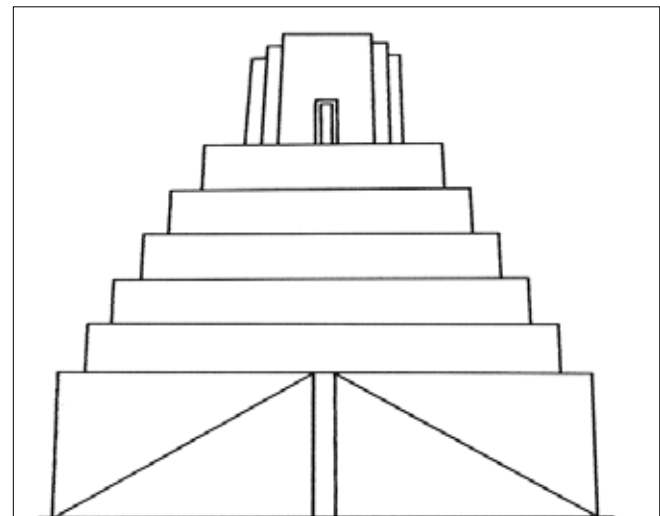
박성현 박사
(고든콘웰신학교 구약학교수)



바벨 탑을 다시 쌓다니 - 누가? 노르웨이의 스케옌 (M. Schøyen) 개인 소장유물 가운데 하나인 '바벨 탑 석판'(Tower of Babel Stele)은 느부갓네살(2세)이 무너진 바벨 탑을 재건했다는 기록과 함께 그 모양까지 새겨 놓은 것으로 유명하다.

여기서 느부갓네살은 다른 야닌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온 바벨론의 왕이다. 주전 605년, 나보폴라사르(Nabopolassar)의 뒤를 이어 바벨론의 통치자가 된 그는 주전 597년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유다의 왕 여호야킨을 잡고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 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왕하24:14). 그리고 주전 586년에 이르러서는 아예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을 불사르고 "비천한 자"를 제외한 모든 유다인들을 포로로 잡아 갔다(왕하25:12). 여러 사료를 바탕으로 당시 역사를 살필 때, 느부갓네살이 바벨 탑 재건을

인가. 유다 백성은 포로로 잡혀가 다시 쌓은 바벨 탑 꼭대기에 바벨론의 주 신 마르둑의 신전을 짓게 되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4년 후, 느부갓네살의 군대는 예루살렘과 솔로몬 성전을 불살랐다. 이것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고 바알, 아세라를 섬기기에 이르렀던 유다 백성에게 입힌 심판의 또 다른 한 면이었다.



'바벨 탑 석판'(The Tower of Babel Stele)을 바탕으로 복원한 탑 측면도

7층까지의 고 역시 91미터의 크기이다. 대충 현대의 30층 건물 높이와 같은 크기다. 바벨 탑을 재건하는 과정을 느부갓네살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온 땅, 모든 수령을 동원했다... 상해에서 하해까지... 오지와 먼 섬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을... 에테메난키의 기초는 (흙을) 채워 높은 토대를

인물이다. 이렇게 볼 때 바벨 탑은 최소한 세 번은 지어졌을 것이다. 홍수 이후에 한 번, 함무라비 때 다시 한 번, 그리고 느부갓네살 때 또 한 번. 특히 그 탑을 다시 쌓일 때 그 양식과 기법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이 놀랍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온 땅의 사람을 노예로 부려 탑을 쌓게 했다는 기록은 어쩌면 창세기 11장의 바벨 탑 건축도 그런 착취와 감압의 면모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근거를 마련해 준다. 탑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쌓는 인간의 동기, 목적, 수단인 문제의 본질이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쌓은 바벨 탑은 일단 그 터에 세워진 마지막 탑이 되었다. 매대(Media)와 바사(Persia)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후 아하수에로(Xerxes 1)가 그 탑을 일차 허물었고(주전 484년; 참고로 아하수에로는 에스터서에 나오는 동일인물이다), 주전 4세기 말엽 헬라 제국을 일으킨 알렉산더(Alexander)

"누가 바벨 탑을 다시 쌓았는가? 느부갓네살이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 과연 마지막이었을까?

마친 것이 주전 590년경으로 추정되므로 그가 주전 597년에 끌고 간 유다의 "장인과 대장장이"들은 막바지에 이른 바벨 탑 재건 현장에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나는 에테메난키(Etemenanki) 건축에 세상 모든 자들을 동원했다. 그들에게 강제노역의 짐을 지웠다"(느부갓네살의 에테메난키 원문 기술통 비문 중).

위 비문이 언급한 에테메난키는 느부갓네살이 다시 쌓은 바벨 탑을 일컫는 명칭으로서 '하늘과 땅의 토대가 되는 전'이란 뜻을 갖는다. 그리고 이 공사는 탑 꼭대기에 신전을 지음으로 마무리됐다:

"그 꼭대기에는 나의 주 마르둑(Marduk)을 위한 거룩한 처소를 지었다"(느부갓네살의 에테메난키 원문 기술통 비문 중). 이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

질문의 답을 정리해 보자 - 누가 바벨 탑을 다시 쌓았는가? 느부갓네살이었다. 그 작업은 타지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동원해 진행했는데,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끌려온 유다 백성이 그 가운데 있었다.

'바벨 탑 석판'에 새겨진 탑의 남쪽 측면은 7층 구조를 보여 주는데 다른 층들에 비해 1층의 고가 가장 높고, 2층에서 6층까지는 각각 비교적 고가 낮은 단층 토대를 이루며, 출입문이 있는 제 7층은 신전 건물로서 비교적 고가 높아서 내부적으로 두 층의 구조를 가졌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1층은 중앙과 좌, 우 도합 세계의 계단을 갖추었다.

다른 사료를 통해 그 크기를 계산해 보면 탑의 1층 사면 모두 각각 넓이가 91미터이고,

만들었고, 역청과 구운 벽돌로 구조를 쌓아 올려 그 꼭대기를 해처럼 빛나게 했다..."(바벨 탑 석판 중).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바벨 탑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온 땅... 벽돌... 역청... 탑... 꼭대기... 하늘..."(창11:1-4). 묘사된 장면들이 겹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궁금하다 - 느부갓네살이 다시 쌓기로 한 그 무너진 탑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바벨 탑이지 않을까?

아쉽지만 그렇지 않다. 느부갓네살이 다시 쌓기로 한 바벨 탑의 전신은 아수르(Assyria)의 왕 산헤립(Sennacherib)이 주전 689년 바벨론을 정복할 때 허문 것으로서 함무라비 때(주전 18세기) 쌓은 것으로 추정된다(참고로, 산헤립은 히스기야 때 유다를 침공했던 동일

가 바벨론을 차지한 후 탑을 다시 쌓고자 터를 걷어 냈으나 추진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마지막이었을까? 인간은 분명 다른 어떤 것에 새 터를 잡아 그 탑 쌓기를 계속 해 왔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바벨론 이름 석자가 성경의 마지막 책에까지 따라붙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바벨론이라"(계17:5).

참으로 집요한 인간이다. 오직 주께서 참으시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벘후 3:15).

spark4@gordonconwell.edu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이웃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다. 가까이 사는 이웃이 마치 사촌처럼 가깝다는 뜻일 것이다. 내 어린 시절에는 정말 이웃이 사촌처럼 가깝던 기억이 난다. 초등학교 다닐 때 엄마가 팔 시루떡을 만드시면 떡 배달 심부름을 시키신 기억이 난다. 방금 짜내서 뜨거운 김이 모락 모락 오르는 떡을 접시에 담아 주시면 언니와 같이 동네를 한바퀴 돌며 이웃들에게 갖다 드렸었다. 다른 집에서 음식을 담아 보낼 때면 빈 그릇 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반찬을 담아 주시면서 다시 갖다 드리고 하신던 생각도 난다. 떡을 돌릴 일은 없지만 나에게도 이십 년 가까이 사촌처럼 지내는 이웃이 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왔을 때 옆에 살고 있던 이웃이다. 오른 쪽은 중국 가정, 왼쪽은 인도 가정인데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고 있는 분들이다. 이사 온 해에 인도 분 큰아들이 돌잔치를 한다고 초대해서 갔었는데 그 아들이 이번엔 대학을 가게 되었으니 오랜 시간을 곁에 살았다. 인도 엄마는 달랑거리는 내가 깜짝 잊어버리고 차고 문을 안 닫고 집으로 들어 온 저녁이면 어김없이 차고 문 열려 있다고 전화할 해 준다. 여름 날 창문을 내리고 운전한 후에도 창문 열리는 것을 잊어버린 날에는 차 창문 열려 있다고 전화를 해 주기도 한다. 한 해 겨울은 바깥 날씨가 추워서 그랬는지 차고에 생쥐가 들어왔다. 끈끈이를 놓아 두었더니 몇 시간 후에 나가 보니까 작은 쥐가 붙어 있었다. 아무리 용기를 내서 끈끈이에 붙어 있는 쥐를 쓰레기 봉투에 담으려고 해도 살아서 눈이 반짝거리는 쥐를 차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얼마만에 사는 큰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바빠서 못 오겠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속 나왔다. 어쩔 수 없이 옆 집 엄마에게 전화를 했다. 잠시 후에 아빠와 아들이 작전 수행이라도 하듯이 이마에 플래쉬 라인을 달고 긴 막대기를 들고 왔다. 쥐를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통에 넣어 주고 가는 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아침 산책 길에 만나면 눈 인사를 할 뿐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이 산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온라인 시대답게 동네 사람들의 소식을 전하는 사이트가 있다. 나도 그 사이트에 종종 필요한 정보가 있다고 옆 집 엄마가 알려 주어서 가입을 했다. 그 사이트에는 카오테가 길 가에 돌아 다니고 있으니 감히 조심하라는 소식부터 안 쓰는 물건을 싸게 판다는 소식, 자기는 이 동네에 새로 이사 왔다고 인사하는 글, 나쁜 사람이 자전거를 훔쳐 갔다는 동영상, 생활에 필요한 정보 등의 이웃에서 벌어지는 온갖 소소한 일들이 다 올라온다. 매일 그곳에 올라오는 소식만 읽고 있어도 심심하지 않을 것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온라인은 대면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 딱딱한 딱을 돌리던 그런 푸근한 인심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딱은 아니지만 옆 집 엄마가 한국마켓에서 파는 큰 후지 사과가 맛있다고 해서 사과 한 박스를 사다 준 적이 있다. 바빠서도 않은 사과 한 박스를 그렇게 고마워 할 수가 없었다. 때로는 감 밭에 가서 감을 따오면 나누어 먹기도 하고 우리 집에 열린 포벨로와 그 집 그레이프 푸트를 서로 바꿔 먹기도 한다. 그 집이 여행을 갈 때면 나에게 집을 좀 잘 봐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내가 특별히 집을 봐 줄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독이 들지는 않는지 출퇴근 길에 한번 더 옆집을 쳐다 보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된다.

참 좋은 이웃이지만 나에게 그 부부를 향한 마음의 부담이 있다. 그분들은 힌두교 신자이다. 아들이 어릴 때는 할로윈이면 해마다 친구들을 초청해서 집 앞에서 할로윈 파티를 했다. 할로윈이 아이들이 가면 쓰고 캔디를 얻으러 다니는 흥겨운 축제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에게도 몇 번 파티에 오라고 초청을 했다. 그 부부는 물론 내가 기독교인 것을 잘 알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할로윈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대신 교회 행사를 마친 후 늦게라도 가서 그 부부의 친구들을 만나 음식을 나누며 인사를 했다. 또 그분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지만 성탄절이 되면 어김없이 집 밖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다. 정말 좋은 이웃이라면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할텐데 그분들이 이사 가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나에게 큰 숙제이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어 찬양예배: 오후 2:00 주요 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991, www.thankingchurch.com 66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fercsca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0026</p>	<p>남가주사망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전 11:20 영어예배: 오후 1:20 영아원 (장소: 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www.dkc.org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게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영어)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p> <p>Tel: (213)381-2202, www.mjpc.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영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7:3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어예배: 오후 1:30(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654-4010 / bethe@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235-78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323)737-3009, Cel: (213)215-862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엘피스사역원</p> <p>원장: 박은숙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합동목사) 상담사목: (월-금) 오전 10:00~오후 4:30 사역대상: 1. 영성사역 2. 교회발전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p> <p>www.epifamily.org Tel: (213)700-98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단체세례기도회: 365일 24시간 오픈</p> <p>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성령대위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02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p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75</p>	<p>좋은마음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310)530-4040(C4),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M. 예배: 오전 9:45(10: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30(본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csc.org 19650 Manner Ave., Torrance, CA 90503</p>	<p>하늘소망교회</p> <p>담임목사: 김덕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아성경이 읽히게" 오전 9:30 오전 7:00</p> <p>Tel: (213)500-2948, dckc.kim@bct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목회서신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이름값

모든 골퍼들의 한 가지 소원은 페블비치(Pebble Beach) 골프코스에서 골프를 쳐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골퍼의 대가인 잭 니클라우스(Jack Nicklaus)

는 만약 자신이 마지막으로 골프를 쳐야 한다면 페블비치 골프코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골퍼장에서 골프를 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 년간 적금을

든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골프 장 예약권을 생선 선물로 드리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서부관공을 오면 빠짐없이 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명 18마일 코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안가를 둘러보는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고, 환상적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고, 오랜만에 방문하다보니 기념품을 사야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장을 둘러보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없었지만 베를비치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자켓에 시선이 끌렸습니다. 모자를 써보니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 앞창이 넓게 되어있어서 약간 큰 머리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어울렸기 때문입니다. 좀처럼 마음에 드는 모자를 찾을 수 없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들었

습니다. 마음에 들기도 하고 기념인데 하나 사자 마음먹고 모자를 집어 들어서 가격표를 확인해 보니 순간 마음에 같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야하냐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포기하고 눈에 들어오는 자켓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역시 자켓의 가격표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나의 허를 차게 만듭니다. '페블비치 이름값'이라는 것이 이렇게 비싸구나라는 것을 새삼 느끼며 매장에서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물건이지만 가격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름값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이 어떤 상표로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값의 차이가 엄청나게 생깁니다. 사람들이 상표와 이름에 많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그만큼

큰 물건의 이름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사람의 가치를 그 사람이 쌓아 온 스펙들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끝없는 스펙을 쌓아갑니다. 자신의 스펙이 곧 자신의 이름값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도', '예수님의 제자' 라고 하는 이름값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 제자로서의 이름값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도부터 성도로서의 이름값, 예수님 제자로서의 이름값의 가치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성도, 제자로서의 이름값이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들을 추

구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성도, 제자로서의 우리 이름값에 아무런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세상은 분명히 우리의 이름값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살아왔던 과거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고, 성도로서 높은 가치를 인정을 받았습니. 우리는 나로 인해서 성도라는 이름값이 어떤당하지 않고, 위엄과 갈망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ayosupbois@hotmail.com



이정현 썰비취사랑교회 취임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썰비취 사랑교회 은퇴 및 취임식

이정현 담임목사...충실한 사역 이어갈 터

썰비취사랑교회는 소교민 담임목사 은퇴 및 이정현 담임목사 취임식을 5월1일(주일) 오후 2시30분에 가졌다. 이정현 목사는 "하나님 은혜로 제자훈련, 설교, 성경가르치는 사역,

스물그릅 사역, 상담사역, 치유 사역 등 사역을 해왔다"라며 "장로교 신학에 성령사역을 접목하는데 힘썼다. 리저월드에서 부름을 받고 보니 훌륭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주일 설교 사역, 금요 티칭사역을 꾸준히 할 것이다. 상담사역도 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여 성경대로 가르치고 믿고 살도록 충실히 사역하겠다. 많이 기도해주시고 사랑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현 목사 사후로 열린 예배는 이영구 목사가 기도했으며 찬양대 찬양, 소은경 자매 특송, 김관중 목사(뉴크리에이션교회)가 '하나님의 뜰 안에서(시 92:12-15)'라는 제목의 설교로 이어졌다. 이어 열린 은퇴및 원로목사 추대패 증정, 소교민 목사 인사, 취임패 증정 및 이정현 목사 인사말, 민경선 교수 외 2인 축하연주가 있었다. 이어 김삼도 목사(동부평강교회)와 최학량 목사(뉴크리에이션교회 원로)가 축사했다. 이날 예배는 김선중 목사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라크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콘서트 연다

15일(주일) 오후 7시30분 St Paul Catholic Church

라크마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 주제 음악회를 개최한다.

라크마(대표 최승호, 음악감독 윤임상) 심포니 오케스트라 & 코랄 (LAKMA Symphony Orchestra & Choral)이 모짜르트 레퀴엠을 연주하며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한 기도 (Prayers for Peace in Ukraine)"란 제목으로 오는 5월 15일 일요일 오후 7:30분에 St Paul Catholic Church (1920 S. Bronson Ave, LA 90018)에서 연주회를 갖게 된다.

음악회는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위한 기도(Prayers for Peace and Comfort)"란 주제로 LA 우크라이나 심포니오케스트라 상

임지휘자인 맥심 쿠진(Maxim Kuzin)의 지휘로 우크라이나 멜로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 등 두 작품을 연주한다. 이어 한국민족이 주는 위로의 음악을 선사하게 된다. 그것은 1953년 6.25 전쟁 끝말에 작곡가 나운영 선생의 전쟁의 폐허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소원하며 곡을 썼던 한국 최초의 시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23편)"라는 곡이다.

이어 두 번째 주제인 "전쟁에서 희생된 자들을 위로하는 기도 (Remembrance and Prayers for the Fallen)"로 레퀴엠 중 가장 대표적 모짜르트의 레퀴엠을 연주하게 된다. 윤임상 라크마 음악감독의 지휘로 다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라크마 합창단과, 월드미션대학교 챔버 콰이어가 합창을 하고 라크마 심포니 오케스트

라가 반주를 하게 된다. 이에 윤임상 교수는 "음악을 통해 사람을 돕는다는 슬로건을 갖고 라크마가 마음을 모아 음악회를 준비하여 우리 교민뿐 아니라 다민족을 초청하여 함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고자 한다. 이 연주회를 통해 얻어지는 모든 수익은 모두 우크라이나를 돕는 일에 후원금으로 지금껏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것은 TheLakma.Org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213)820-5737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라크마)



콘서트 포스터

희망을 위한 함께걷기(Walk For Hope) 기금 모금 행사 개최

"COVID-19로 인한 정신 건강 상담 프로그램 후원"

패밀리터치 (정정숙 원장)는 '희망을 위한 함께 걷기' 기금 모금 행사를 23일 토요일 오전 10시 레오니아에 위치한 Overpeck Park에서 개최하였다.

COVID-19팬데믹으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신건강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자 약 60여명의 후원자들이 한

마음으로 걷기 행사에 동참하였다. 이번 행사는 오버팩 공원 뿐 아니라 각자의 시간과 장소에서도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FTWFH 해시태그를 사용해 소셜 미디어에 인증하며 함께 하였다.

패밀리터치는 2001년에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교육과 상담을 통해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족을 세움으로 온 세대가 건강한 이민 사회

를 만들고자 다양한 가족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201)242-4422 info@familytouchusa.org



시론

(3면에서 계속) 그러기에 그는 복음의 원칙과 기분이 흔들리지 않고 가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 살라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자리와 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도 우리들도 그리 살기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 살아야 할 길이 제자도(막 8:34)이기에 적어도 그리 살려고 몸부림만은 해주셨다. 우리는 따라 살고 싶을 때부터 나침반을 무척 좋아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서도 나침반의 바늘은 파르르 떨며 북극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나침반의 기본과 원칙입니다. 떨림이 없는 그래서 방향을 못 찾는 나침반이라면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고장 난 나침반입니다. 항상 파르르 떠는 그 떨림 그리고 결국에는 방향을 찾아가는 순간들이 너무나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들도 비록 그리 살지는 못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떨림이 항상 파르르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나 현실에서도(반복) 항상 예수를 향한 방향성만큼은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운전할 때도 약간의 핸들 움

직임은 직진하는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유격'이라고 합니다. '살의 유격' 또한 존재합니다. 좌우로 약간은 움직여도 방향을 잃지 않는 '인생의 유격' 말합니다. 예수가 부르신 사역의 삶의 자리(CALLING)에서 소명의 열정을 갖고 파르르 떠는 떨림으로 원칙과 기분을 잃지 않고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며 사는 우리들이 될 때, 적어도 인생의 유격이 있더라도, 아니 그 유격을 가끔은 벗어날지라도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렇게 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는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내 안에,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세상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이 성령의 역사로 눈에 보이게 손으로 만져지게 '여호와와 행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은 작은 예수(SMALL CHRIST)요 걸어 다니는 교회(WALKING CHURCH)이기에 세상은 이런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봅니다. 2년여 넘게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나 평생의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즈음, 자칫 흔들릴 수도 흐려질 수도 흠뻑 젖어질 수도 있는 예수쟁이들의 기본과 원칙을 5월 가정의 달에 공동체의 달에 다시 한번 자리매김해 봅시다. pastor.eun@gmail.com



발행인 김성국 목사가 유원정 전도사께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아름다운 헌신

그동안 본사 편집국장으로서 수고하신 유원정 전도사님이 지난 4월 30일로 사임했다. 유전도사님은 1999년 4월 부터 2022년 4월까지 23년간 한결같은 자세로 본사의 발전과 문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데

기여했다. 본사는 유원정 편집국장의 아름다운 헌신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편집국)

분별력 있는 건강한...

(2면에서 계속) *아이들의 수준에서 올바른 성 지식이 중요한 이유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음란물의 현실과 위험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를 이해 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은 LGBTQ가 무엇인지, 성경이 그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어떻게 진리와 은혜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해 해야 한다. *아이들은 궁극적으로 부모

로부터 성을 듣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올바른 성 지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물론 아이들의 나이에 따라 분별력을 가져야 하겠지만, 불편하다고 현실을 외면하는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문제에 대해 솔직해지자.

성이 왜곡된 세상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힘든 일이다. 하지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살을 주셨고 화살로 무엇을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자, 그리고 참여하라, 의도적으로 다가가라. 그만큼 가치가 있을 것이다.

Advertisement for a church event titled '피종진 목사 5월 부흥성회' (Pastor Pyeongjin's May Revival Service). It lists dates from May 2nd to 30th with various activiti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hurch at 40 Gaebo-dong, Gyeongju.

동부교계 게시판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제46회 총회

제46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를 “교회의 기초와 권세”라는 주제로 5월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시카고 Hilton Hotel에서 열린다.

▲ 문의: 총무/박신웅목사(614)886-4425 서기/서정호목사(319)432-8892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

뉴저지 목사회가 주최하는 미동부 5개주 목사회 체육대회를 5월 23일 월요일 뉴저지에서 개최된다.

▲ 문의: 201-805-5129

뉴욕 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욕 한인타운 중심에 위치한 뉴욕효신장로교회 (미국장로교 ARPC 소속)에서는 주님의 제자양성과 2세교육, 지역 및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예수님의 심장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실 제 3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한다.

제출마감 : 2022년 6월 15일까지

▲ 문의: pastorforhyoshin@gmail.com



한인, 다민족 어르신들 위한 두시 공연 중

이노비, 뉴저지 은혜가든 양로원에서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5월 가족의 달과 어머니 날 맞이 '코리안데이' 콘서트

장애인, 암환자, 장/단기 입원 환자, 양로원 거주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소외된 이들을 직접 찾아가 연주회를 개최하는 문화복지 NGO 이노비가 뉴저지 양로원 은혜가든에서 잠전용사들과, 양로원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아름다운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5월 가족의 달과 어머니날, 그리고 은혜가든 양로원의 '코리안데이'를 맞이해 특별히 준비했다.

이번 공연에는 이노비와 오렛존 협연과 봉사를 지속해 온 메조소프라노 박영경 씨가 음악감독을 맡아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함께하는 이노비 연주자들은 바이올리니스트 정미연, 소프라노 김은희, 피아니스트 이정현, 그리고 특별히 한국의 날을 맞아 한국무용가 장영주 씨가 참여해 어르신들을 위한 무대를 가졌다.

이 날 2회에 걸쳐 아리랑, 고향의 봄, 엄마야 누나야 등 한인들이 좋아하는 곡들과 함께 장구 연주와 한국 무용 외에도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미국 곡들로 공연을 진행하였다.

이 공연은 코로나 이후 이노비가 오랜만에 개최한 대면 콘서트로 팬데믹 이후로 방문하는 병원 등 양로원과 여러 시설들이 외부인들의 방문을 금지하여, 그동안은 공연을 사전 녹화해서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보여주는 디지털 아웃리치 콘서트로 활동을 지속해 왔는데,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방문이 허용되는 시설에 한해 대면행사를 조금씩 늘려갈 계획이다. 이 공연은 은혜가든 양로원의 특별 요청과 재외동포재단(뉴욕총영사관)과 조 파운데이션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기사제공: 이노비)

“뉴욕 선교 도시로!” 뉴욕선교대회

뉴욕선교대회 후원을 위한 특별모금 생방송

뉴욕교협 주최 뉴욕선교대회 후원을 위한 특별모금 생방송이 5월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라디오 AM1660을 통해 진행됐다.

본 방송을 위해 교협회장 김희복 목사, 부회장 이준성목사를 비롯해 임원들과 준비위원, 김일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본 방송에서는 해외에서 사역하는 많은 선교사들과 전화연결을 통해 사역과 함께 기도제목 나누었으며 선교사들을 후원하고자 하는 이들의 전화도 연결했다.

교협회장 김희복 목사는 “팬데믹 3년동안 교회의 침체와 더불어 선교사들의 어려움이 많았기에 뉴욕선교대회를 통

해 선교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용기와 희망과 비전을 품어 주기위해 선교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선교대회 개최목적 을 말했다.

뉴욕선교대회는 “뉴욕 선교 도시로!”라는 주제로 5월 26일(목)부터 29일(주일)까지 뉴욕

장로교회(김학진 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뉴욕선교대회를 위한 중보기도 텐트를 설치하여 기도하는 시간도 가진다.

주 강사는 김용의 선교사(순회선교단)이고 강사는 김남수 목사(프라이미스교회 원로)와 고석희 목사(KWMC 상임의장)이다.

뉴욕선교대회에는 선교사 18명과 사모 9명 등 27명이 참석한다. 참석하는 선교사들은 조운제 선교사(코스타리카), 양창근 선교사, 박경주 선교사(파라과이), 박대성 선교사(태국), 고엘리사 선교사(몽골), 김선훈 선교사, 김현주 선교사(콜롬비

아), 배점선 선교사(불가리아), 안태홍 선교사(인도네시아), 박상배 선교사(말레이시아), 예레미야 박 선교사, 박현수 선교사(키르기스탄, 아이티), 김현일 선교사, 고윤정 선교사(유대인), 이순례 선교사(북한), 황영진 선교사, 황은숙 선교사(엘살바도르), 이태진 선교사(인도), 최영호 선교사(일본), 곽시은 선교사, 정바울 선교사(캄보디아), 김창호 선교사, 김영애 선교사(에콰도르), 유광수 선교사, 윤영숙 선교사(캐나다), 김호성 선교사, 김미라 선교사(국제도시선교회ICM) 등이다. 뉴욕교협 김희복 회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뉴욕선교대회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했고 많은 역사가 있을 것을 기대하라고 말했다.

(정리: 홍현숙 기자)



뉴욕선교대회 포스터



뉴욕가정상담소 컴퓨터 기초반 수업이 4월 28일자로 종강수업을 가졌다

뉴욕가정상담소 컴퓨터 수업 종강

“여름학기 기초반수업, 7월 중급반수업 예정”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 진행된 뉴욕가정상담소 컴퓨터 기초반 수업이 4월 28일자로

종강 수업을 가졌다. 15주간 진행된 수업에서 학생들은 컴퓨터의 하드웨어 사용법들과 다양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법 등을 배웠으며 이를 통해 일상생활 및 직업활동에 편리와 재미를 더하였다. 문서 사용법과 관리 방법 등을 탐구해보았으며, 영상제작을 배움으로써 소중한 추억을 특별하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에 따르면 “짧았지만 이 수업을 통하여 기술을 배운 것과 더불어 자신감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

다”고 한다.

첫 컴퓨터 기초반은 종강되었지만 5월부터 시작하는 여름학기 기초반과 7월에 시작하는 중급반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뉴욕가정상담소 경제자립 대차그림은 각종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Ready NY 단체와 협력하여 재난에 따른 비상계획과 필요한 대처방법 등을 5월 9일 화요일 정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문의: (917)887-9173 뉴욕가정상담소 경제자립 프로그램

(기사제공:뉴욕가정상담소)

굿네이버스USA 소리엘 장학재 교수 초청 나눔 콘서트

“제3세계 빈곤 아동들을 돕기 동부 콘서트”

‘야곱의 축복’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과 같은 CCM 찬양으로 유명한 찬양사역자 소리엘 장학재 교수가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 USA와 함께 찬양 나눔 콘서트를 실시한다.

제3세계의 빈곤 아동들을 돕기 위한 나눔콘서트는 5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 뉴욕 센트럴교회(김재열 목사, 주소: 154 Old Westbury Rd Old Westbury, NY 11568, 문의: 516.387.9940)를 시작으로 5월 8일 뉴저지 은누리교회(마크최 목사), 5월 11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백은영 목사,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 문의: 215-542-0288), 5월 13일 금요일 저녁 8시 필라델피아 임마누엘교회(이찬우 목사, 4723 Spruce St., Philadelphia, PA 19139, 문의: 215-476-0330), 5월 15일 오후 2시 주일 뉴욕 플러스 교회(김준근 목사,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문의: 646-770-7910)에서 실시한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전 세계 빈곤아동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의 혜택을 나누어 주기 위해 아동결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



굿네이버스 사랑 나눔 찬양 콘서트 - 소리엘 장학재 교수

으며, 이 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굿네이버스 나눔 대사로 활동 중인 장학재 교수가 미주 지역에서 매년 ‘재능기부’하며 나눔 콘서트를 진행한다. 해외 빈곤아동 결연은 월 \$35로 후원자가 아동과 1:1로 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돕는 방법이다.

한편, 장학재 교수는 2022년 7월 6일부터 17일 아틀란타, 알라바마 지역에서 2022년 9월 2일부터 11일은 텍사스 지역에서의 나눔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다.

▲문의: (213)447-9898 굿네이버스 김재학 본부장 jkim@goodneighbors.us

(기사제공: 굿네이버스)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동부(NY, NJ)교회</h1>		<h3>뉴욕갯세미네교회</h3> <p>담임목사: 이지용</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40 새벽 기도회: 오전 5:30 수요 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 기도회: 오후 8:30 한국교회: 오전 9:30(토)</p> <p>Tel: (516)520-2004, www.nygetsemi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h3>뉴욕목양장로교회</h3> <p>담임목사: 허신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08:45 수요성경강좌: 오후 08:00 금요찬양: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p> <p>Tel: (718)261-9199, www.mcke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h3>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이은석</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관: 오전 10:00 화토</p> <p>Tel: (718)265-2694, www.kbc.org 14 Gaversa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h3>뉴욕새벽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정기태</p> <p>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토)</p> <p>Tel: (917)733-7387, bmschurch2021@gmail.com 46-08 161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새사람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원</p> <p>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p>	<h3>뉴욕양무리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준성</p> <p>주일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8시</p> <p>Tel: (718)662-6611 147-01 38th Ave, Flushing NY 11354</p>	<h3>뉴욕센트럴교회</h3> <p>담임목사: 김재열</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pcnyc.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h3>뉴욕주천양교회</h3> <p>담임목사: 김희복</p> <p>주일예배: 오후 2시 다민족통일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예배: 구역모임</p> <p>Tel: (646)270-9037 kimheebok7@gmail.com 76-11 Woodside Ave, Elmhurst, NY 11373</p>	<h3>뉴저지성도교회</h3> <p>담임목사: 허성희</p> <p>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예배: 오후 8:30 (매주 1주, 3주)</p> <p>Tel: (201)342-9194, sundog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h3>베이사이드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식</p> <p>경연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간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회: 오전 5:45 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토요일 오전 5:30</p> <p>Tel: (718)229-2888, www.nybsidschurch.com/V2/ 45-62 21st St, Bayside, NY 11361</p>	<h3>빛과소금교회</h3> <p>담임목사: 정순원</p> <p>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창의예배 오후 3:40분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p> <p>Tel: (347)513-1351, cheongsunwon@a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h3>사랑의동산교회</h3> <p>담임목사: 강신용</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20</p> <p>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p>	<h3>어린이양육교회</h3> <p>담임목사: 유승례 EM 목사: 임지윤</p> <p>On-line Worship Service: 11am Transformed Transforming Prayer Healing Ministries, Bible Studies, One-2-One, 2nd-3rd-Multicultural Ministries (John 21:15)</p> <p>Tel: (845)848-2013</p>	<h3>은누리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문휘</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6:00</p> <p>Tel: (845) 359-1458, http://onunrechurch.com 10 Oak St, Orangeburg, NY 10962</p>	<h3>퀸즈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성국</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718)896-4040, www.kqpc.org 147-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h3>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h3> <p>담임목사: 김성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찬양기도회: 매일 셋째, 셋째, 7시 세례 금요일 오전 7:30 금요양육 기도회: 매월월(금) 오후 7:30</p> <p>Tel: (604)584-5780, www.pcc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p>	<h3>브라질 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병헌</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p> <p>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h3>브라질 서울교회</h3> <p>담임목사: 하경남</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p> <p>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p>	
<h3>아르헨티나 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최광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주일 12:00</p> <p>Tel: (54)114-631-1788, AR,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p>	<h3>찰레 한인연합교회</h3> <p>주일 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 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p> <p>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h3>토론토 가든교회</h3> <p>담임목사: 유문건</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h3>하와이 영복교회</h3> <p>담임목사: 이남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h3>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조일규</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ical St, Honolulu, HI 96822</p>	<h3>멕시코 현지인 교회</h3> <p>담임목사: 임한근 선교사</p> <p>1. 멕시코 본토 신학교 교수 2. 임하루 신학대학 교수</p> <p>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p> <p>Tel: (52)33-3507-4111, hanmin@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jajara MEX(멕시코)</p>

KACC 4.29 30주년 기념예배

“폭동을 기점으로 한인사회 다방면으로 확장해가는 지혜 시작”

한미기독교연합회(KACC 회장 민승기 목사) 주최 4.29 30주년 기념예배가 시온성결교회(담임 이대연 목사)에서 열렸다. 홍성관 목사 사회로 열린 기념예배는 고귀남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신원규 목사가 ‘왜? 기억해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신원규 목사는 “1992년 4월29일부터 5월4일까지 한인타운에 엄청난 폭동이 일어났다. 누가 아닌지 적군인지 구별되지 않



4.29 30주년 기념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은 폐허 속에 우리 교민들은 군복을 입고 생명을 걸고 우리 커뮤니티를 지켜냈다”며 “폐허가 된 한인 타운이 30년이 지난 후 피해복구는 물론 더 많은 발전이 되었다. 이는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황폐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데는 한민족의 기질이 한인동포사회에도 있었기에 오늘날 한인 커뮤니티가 성장하게 되었다. 한인 이민자들과 2세들이 오늘날 정계에 많이 진출했으며 한인사회도 많이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의 출발점은 30년 전의 폭동이었다”며 “폭동 이전 한인들은 한국인이라는 카테고리 속에 갇혀있었다. 하지만 폭동 이후 한국계 미국인들과 함께 교재하며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며 살게 되었다. 폭동이 아픔을 주었지만 오히

려 폭동을 기점으로 한인사회가 다방면으로 확장해가는 지혜가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설교에 이어 최학량 목사(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샘신 목사(KACC 사무총장) 사회로 열린 2부 기념식은 국민의례 김순희 권사(대한민국역사시기 운동본부 회장) 미국국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민승기 목사 환영인사, 4.29 기념영상

리처드김 LA 시 검사,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 유수연 ABC 교육위원 제임스안 LA한인회장 기념사, 최학량 목사 간증했다. 영감, 토드 스피처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 최석호 거주하원의원의 케더린 바거 LA카운티 수퍼바이저, 김영완 LA총영사 축사가 영상으로 소개됐다. 사무엘고메즈 목사가 ‘미국국가발전을 위해’, ‘다민족 연합을 위해’ 유수연 교육위원이 안신기 목사(한사랑교회)가 ‘우크라이나와 세계평화를 위해’ 샘신 목사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행사는 이대연 목사(시온성결교회) 폐회기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세계선교교회 임직예배를 마치고 임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세계선교교회 임직예배

“맑은 소명에 충성을 다하는 임직자 되길”

세계선교교회(담임 김창섭목사)는 24일(주일) 오후 2시 세계선교교회 본당에서 드려진 임직예배를 통해, 강용구,이근춘,이종진 장로 장립을 비롯하여 안수집사, 권사 임직과 명예 권사를 추대했다.

임직식에 앞서 김창섭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신기준장로 기도, 장상근전도사 특송과 김인수목사(전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의 설교가 있었다. 김인수목사는 ‘서원’(사사기 11:29-31)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임직을 소개하며 “서원은 한번하면 지켜야 하는 것이다. 사람과의 약속도 중요하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은 아주 중요하다. 임직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 한 것’과 ‘서원을 할 때 심사숙고’ 하지 않는 실수를 범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마디 가운데 한마디를 들을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이다. 오늘 임직 받은 자나 이미 임직을 받은 자들은 어떤 말을 듣기 원하는가. 충성이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긴 소임을 충성

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이루는 것이다. 맑은 소명에 충성을 다하는 임직자들이 되기 바란다”고 설교했다.

이어 김창섭목사의 집례로 임직식을 갖고 임직자들과 교인서약을 한 후 안수식을 거행하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명예권사로 추대되었음을 공포했다.

이날 홍성호 목사는 권면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임직자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 있다. 교만과 탐심을 버리고 충실하게 감당하기 바란다.”고 권면했다. 이어 임직을 받은 이근춘장로는 “부족한 자에게 귀한 직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며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넉넉히 쓰임 받고 바르게 설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고 답사를 전했다.

이날 임직받은 이들은 다음과 같다. △장로: 강용구, 이근춘, 이종진 △안수집사: 유승종, 정승훈, △권사: 김제민, 박성자, 유귀주, 최엘리저 △명예권사: 박숙자, 송영분, 이옥순. (이성자 기자)



미주 2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미주 2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성료

“목회 본질 바로 이해함이 교회의 갱신과 부흥 시작”

미주국제제자훈련원 주최 미주2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4월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의 주강사는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교회 담임, 국제제자훈련원 원장), 주제강의 강사는(국제제자훈련원 대표),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 담임), 윤난영 사모(백석대학교 신대원 교육학 강사), 김홍장 목사(국제제자훈련원 대표),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 담임), 윤난영 사모(백석대학교 신대원 교육학 강사), 김홍장 목사(국제제자훈련원 대표), 김기섭 목사(LA사랑의교회 담임)와 오기원 목사(플러튼 빌립보교회 담임)가 간증과 선택특강을 인도했다. 오정현 목사는 “목회자가 잘 훈련된 평신도를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은 목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선 목회자들이 우리의 공동 지상과제를 놓고 한 자리에서 씨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을 더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목사는 “우리의 사역에 수많은

좌절과 상처가 있을 수 있지만 목회의 본질, 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철학, 평신도를 사명자로 만드는 일에 확고한 뿌리가 있으면 건강한 교회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제자훈련 목회의 본질을 바로 이해하는 데서 교회의 갱신과 부흥은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전론, △교회론, △이민교회와 제자훈련, △제자도, △제자훈련과 패러다임 전환, △제자훈련의 시작과 운영, △제자훈련의 열매와 다량방 체계, △제자훈련과 영성형성, △제자훈련과 교회성장, △제자훈련의 접목과정과 실행지침, △제자훈련과 리더십 등 주제강의와 △소그룹 환경과 성격, △소그룹과 리더십, △구약적 성경연구 실체, △제자훈련을 위한 사전준비, △제자훈련 시간운영의 실제 등 소그룹 인도법, 그리고 현장참관 학습 등 스케줄로 진행됐다.

(박준호 기자)



429평화콘서트에서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4.29 폭동 30주년, 평화콘서트

“커뮤니티의 치유와 기념, 더욱 평등한 사회 만들자”

4.29 폭동 30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기념 콘서트가 29일 한인타운 라디오 코리아가 위치한 3700 워셔 건물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되었다. 4.29 폭동 발생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대규모로 펼쳐지게 된 이번 기념 콘서트는 LA 한인회,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아시아아메리칸정의진흥연대 LA, 한미연합회 LA, 흑인사회의 중심인 First AME Church, 흑인커뮤니티 Los Angeles Urban League 등이 참여했다. 마이클 로슨(LAUL), 제임스 안(LA 한인회장), 제이 에드가 담임목사(First AME 교회), 스티브 강(KYCC 대외협력디렉터), 유니스 송(한미연합

회 LA) 등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단체 대표들은 “이번 행사는 우리 LA 지역 다양한 커뮤니티에 치유와 기념 그리고 인종적으로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 하는 우리의 다짐과도 같은 행사”라며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현재에 함께 공존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함께 준비해 나간다”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기념 콘서트 출연진은 한국 래퍼 Dok2, 빌보드 핫 100에 오른 작곡가이자 가수인 Tayla Parx, 한국 래퍼 Junoflo x G2 x Ted Park, 얼터너티브 팝 아티스트 RÜDE CAT, 한인 가수 Justin Park 등이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생터성경사역원, 목회자집중성경방 열린다

생터성경사역원 LA지부(지부장 김덕수목사)가 주관하는 ‘목회자집중 성경방’이 오는 7월10일부터 8월15일까지 매 주일과 월요일 진행된다.

주일 오후5시-8시20분, 월요일 오후 7시-10시20분. 등록비는 100불이며 목회자, 선교사, 전도사, 신학생, 사모들의 등록 가능하다.

▲ 문의: (213)220-6729 박제니전도사

우크라이나 난민돕기 희망나눔 콘서트

CTS아메리카 주회 우크라이나 난민돕기 희망나눔 콘서트나 14일(토) 오후 6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구봉주 목사)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CTS여성합창단, CTS혼성합창단, CTS스트링 앙상블, 폴루티스트 송솔나무, 갓스이미지가 출연한다.

▲ 문의: ctsamerica1025@gmail.com

은혜한인교회 창립40주년 부흥성회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목사) 창립 4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5월19일(목)부터 22일(주일)까지 진행된다. 본 부흥성회는 ‘꿈을 꾸고 이루어 땅 끝까지’란 주제로 진행되며 순천보목사(부산세계로교회담임)가 강사로 초청된다.

▲ 문의: (714)446-6200

UMC 남가주 한인교회 목회자 부부 모임

연합감리교 남가주 지역 한인 코커스(회장 김낙인 목사)는 오는 5월15일(주일)부터 1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옥스나드에 위치한 매리웃 호텔과 옥스나드연합감리교회(남재현 목사)에서 한인 교회 목회자 부부 모임을 개최한다. 회비는 가정당 100달러, 선교교회 목회자 50달러다.

▲ 문의: (213)235-7659(강현중 목사)

2022년 봄 청지기 말씀축제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는 2022년 봄 청지기 말씀 축제를 ‘제자입니까?’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김병삼 목사(만나교회)이며 일정은 13일(금) 오후 8시, 14일(토) 오전 6시, 오후 8시, 15일(주일) 1-3부 예배이다.

▲ 문의: (626)913-6611

레위기와 함께 하는 말씀 산책

어스틴한인장로교회(담임 김준섭 목사)는 레위기와 함께 하는 말씀 산책을 12일(목)부터 15일(주일)까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경열 목사(드라마 레위기 저자)이며 일정은 12일과 13일(목, 금) 저녁 7시, 14일(토) 오후 1시30분, 저녁 7시, 15일(주일) 주일 1,2부 예배시간이다.

▲ 문의: (512)454-1727

제자플러스 부흥회

토랜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는 5월한달간 매주 수요일 ‘제자 플러스’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갖고 있다. 4월과 11월에 이어 18일은 송병주 목사(선한청지기교회), 25일은 권혁빈 목사(씨드교회)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며 시간은 오후 8시이다.

▲ 문의: (310)370-5500



제3회 메시아 솔리스트 앙상블 정기공연 출연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제3회 메시아 솔리스트 앙상블 정기공연

십자가의 주님 보며 화해와 용서의 선물 나누자

제3회 메시아 솔리스트 앙상블(단장 이사효, 지휘 박성근) 정기공연이 지난 4월17일(주일) 오후 7시 생수의강선교회(담임 안동주 목사)에서 열렸다. 김주연 아나운서(미주복음방송)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안동주 목사가 개회기도를 한 후 이사장 김라니 목사의 환영사를 통해 “2022년 부활절을 맞아 메시아 솔리스트 앙상블과 챔버 오케스트라 제3회 정기공연회가 생수의 강 선교교회에서 열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귀한 음악회를 통

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소망한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화해와 용서의 선물을 나누는 삶을 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사효 단장은 “이번 제3회 정기 연주회는 제1부 예수의 탄생과 예언, 2부 십자가 위에 죽으심과 부활, 3부 다시 오실 재림과 영생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전 곡을 오케스트라와 함께 남가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고의 수준 높은 음악가들이 대거 참석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선사한 아름다운 밤이 됐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칼과 창을 찔리시며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됨을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부활절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공연이 됨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유수연 주하원의원 출마 출정식

주의회에 교육 현장의 현실과 학부모 목소리 전해야

유수연 주하원의원 출마 출정식이 1일(주일) 오후 3시 유수연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열렸다. ABC교육국 교육위원인 유 후보가 출마를 결심한 이유에 관해 “현재 가주의 법 특성교육 비판적 인종이론 교육 등에 관한 법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바꾸려면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에 교육 현장의 현실과 학부모 주민의 목소리를 전해야 한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고민 끝에 출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출정식에서는 영감 연방하원의원 등 정계인사들과 교계인사

들이 참여해 유 후보의 당선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보냈다. (박준호 기자)



유수연 주하의원 출마 출정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글 성경이 있어 한국교회 세워졌다

존로스 한글 성경 번역이 140년간 한국교회·사회문화에 끼친 영향은...

한글 성경이 있어 한국교회가 세워졌다.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448년 지난 1894년 갑오개혁으로 한글이 처음 국문(國文), 즉 나라의 글자로 공인받았는데 스코틀랜드연합교회에서 중국 만주에 파송한 존 로스(1842~1915) 선교사가 이응찬 서상훈 등의 도움을 받아 번역한 '예수성경누가복음전서'가 출간된 것이 이보다 12년 앞선 1882년이다. 한글이란 새 언어에 주목하고 한문을 쓰는 지배층이 아닌 일반 대중을 향해 새로운 민주 공동체를 지향한 것이 곧 한글 성경의 정신임을 반추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대한성서공회와 한국기독교 역사연구소는 2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에서 '존 로스의 한글 성경 번역이 한국교회와 사회 문화에 끼친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예수성경누가복음전서 발간 14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권의현 대한성서공회 사장은

"존 로스의 한글 성경은 최초의 한글 성경이란 역사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순한글로 하나님 말씀을 번역하고 출판 보급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재일 한글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한글 성경은 신앙의 소임을 넘어 글자 생활에 한글 사용을 정착시키고 국어 표기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이바지했다"면서 "한글학회와 마찬가지로 한글성경 번역 역시 우리말 우리글을 가꾸고 지켜 왔다"고 평가했다. 이상학 새문안교회 목사는 개회 기도를 통해 "복음 전후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열렸다"

육성득 미국 UCLA 아시아언어문화학과 한국기독교 석좌교수가 '존 로스와 한국 개신교'를 주제로 기조발표를 맡았다. 개척 선교사이자 선교학자, 성서 주석사이자 성경 번역자로 로스 선교사의 입체적 모습을 살폈다. 로스 선교사는 만주

선교와 조선 선교를 두 발로 감당한 개척 목회 선교사인 동시에 선교방법 한국어 한국어 중국사 등 8권의 저서를 펴낸 학자 선교사였다. 또 한국에서도 널리 사용된 여러 권의 주석서를 쓴 성서 주석 선교사이자, 누가복음으로 시작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등에 이어 1887년 신약성경 전체인 '예수성경전서'에 이르기까지 완역해 발행한 전체 선교사였다. 육교수는 "로스 선교사가 한국에 준 최초의 한글 복음서와 신약전서는 한국문화와 한국 기독교에 영원한 금지탑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경민 전주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역대 한국어 성경 번역 문 분석' 발표를 통해 "로스 성경 이전에는 한글 전문 텍스트가 만들어진 적이 없었다. 한글과 복음이 서로를 살리고 상생하며 민족의 희망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신 남서울대 교수는 '로스 한글 성경의 보급과 소장본에 대한 연구'를, 이두희 대한성서공회 부총무는 '누가복음 20~24장을 중심으로 살펴본 로스 성경 번역의 영향'을 각각 발표했다.

“청년들 일깨우는 시간되길”

복음통일페스티벌준비위원회 등 내달 25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6·25전쟁 정전 69주년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와 복음통일을 염원하며, 청년세대를 통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6·25 복음통일 페스티벌'이 다음 달 25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다.

'6·25 다툼의 장막을 쫓아내는 세대'를 주제로 열리는 집회는 '팔복'의 의미를 담아 8개의 막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낙동강 방어선을 지키는 구국기도회' '믿음의 유산을 갖고 온 월남 피난민들' '분열된 한반도 땅에 화평 선포' 등 한국전쟁의 역사적 장면을 돌아보고 민족의 아픈 역사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되새길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복음통일페스티벌준비위원회와 에스더기

도운동본부(대표 이용희 교수)는 3일 서울 서초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회의 시대적 의미와 진행 방향을 소개했다.

대회장 임현수 목사는 "인간이 겪는 아픔의 순간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깨우치는 과정"이라며 "전쟁뿐 아니라 코로나19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각 시대가 마주하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을 겪지 못한 세대가 하더라도 고난 속 메시지를 발견하는 능력을 갖춘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하늘과 땅 차이"라며 "이번 집회가 청년들을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준 복음과 통일페스티벌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청년세대에 복음통일 페스티벌이 왜 필요한지를 세 가지 이유로 설명했다. 그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에게 6·25전쟁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는 이 같은 전쟁을 반복하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선물인 '팔복' 속에서 자유와 평화를 한반도 땅에 선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집회에는 임 목사를 비롯해 김재동(하늘교회) 목사, 이용희 교수, 김홍의 선교사 등이 연사로 나서 한국전쟁의 주요 장면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에게 영적 도전을 심어줄 계획이다. 이 교수는 "우리 정부가 2019년 이후 4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UHRC)의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져 비난받았던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새 정부가 나아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장합동 서울노회 50년사 보니...

'함께 세운 50년, 함께 세울 50년!' 출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 서울노회(노회장 최성현 목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서울노회 50년사를 담은 '함께 세운 50년, 함께 세울 50년!'을 펴냈다고 2일 밝혔다. 50년사에 따르면 서울노회는 1973년 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했다. 미자립교회 10곳의 전도를 돕기 위한 것이었다.

집필을 맡은 이상화 서헌교회 목사는 "미자립교회 복음 전도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보내기 운동을 하고, 천막교회였던 구파발제일교회 지원을 논의한

기록이 있다"고 했다. 지금은 인터넷 발달로 온라인 사역 논의가 활발하지만, 이뎀 방송을 통한 전도에 관심이 뜨거웠던 등이 방송 전도에 참여 중이라고 보고됐다.

86년 서울노회는 서울 중구 남산타워 불상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시가 불상을 시 재정으로 건립하고 관광객들의 시주를 허락하는 것에 대해 시정하도록 건의하는 것이다. 또 정부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두고 군(軍)의

정기 휴무일을 주일에서 다른 요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이외에 96년 옥한흠 목사가 초대회장을 맡은 교회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체 발족 등도 50년사에 기록됐다.

서울노회는 장성철(75년) 황금천(76년) 정석홍(95년) 목사를 총회장으로 배출했다. 총회 신학교 학장 박형룡 박사, 총신대 이사장 김윤배 목사도 서울노회 출신이다. 서울노회는 창립 당시 서울 용산 마포 서대문을 비롯해 경기 고양 파주 지역 50개 교회가 속해 있었다. 이후 고양과 파주 지역이 분리됐고 지금은 산하 66개 교회가 있다.

군선교 영화 '실로암' 만든다

임흥옥 회장 "군선교 필요성 한국교회에 알리는 계기될 것"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 군선교회(회장 임흥옥 목사)는 지난 28일 오전 울산시 현교회(이성태 목사)에서 제25

"영화가 완성되면 논산훈련소 장병은 물론 전국 군부대와 교회, 유튜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도 상영할 예정"이라고 밝혔

“젊은이를 살려야 나라가 살고, 젊은이 살려야 교회가 산다”

회기 제1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군선교 영화 '실로암' 제작비 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군 선교회장 임흥옥 목사는 "교회와 멀어지는 젊은이들이 너무 안타까워 군선교 영화 실로암 제작을 후원하게 됐다"며

다.

영화 '실로암' 총감독 신동일 장로와 배우 한인수 장로, 김민정 권사, 카메라 감독 경민규 선교사, 크리스천 배우들이 대부분 자비량으로 출연한다.

실로암은 논산훈련소 연무대

국 군부대와 일반 교회, 유튜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도 상영될 예정이고 점점 교회로 부터 멀어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군 선교의 필요성을 한국 교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성경암송 퀴즈쇼 '바이블킹'

국내 기독교 방송 최초의 성경암송 퀴즈쇼 '바이블킹'

국내 기독교 방송 최초의 성경암송 퀴즈쇼 '바이블킹'이 오는 5월 5일부터 12회에 걸쳐 매주 목요일 기독교 OTT 플랫폼 '퐁당'으로 공개된다. "말씀 앞에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바이블킹'은 한국교회의 말씀 암송 문화를 세우기 위해 1년 이상의 제작 기간을 거쳐 성도들을 만났다. 전 세대 1052명이 지원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바이블킹'은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퀴즈와 암송으로 다양한 주제를 담았다. 연령별로 1, 2차 예선과 본선을 거쳐 결선 진출자를 선발했다. 단 한 명의 바이블킹이 탄생하기까지 성경 십자말 풀이, 빈칸 채우기, OX 퀴즈, 젠가 게임 등 다양한 형태의 게임 방식을 적용했다.

'바이블킹'의 진행자로 나선 가수 김영우는 "기독교인이 가장 힘써야 할 것이 말씀을 보고 외우고 지켜 행하는 일이지만 늘 부담스러웠는데 이번 '바이블킹'을 통해 성도들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함께 도전을 하며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바이블킹'은 오는 5일부터 매주 목요일 '퐁당'에 업로드된다. '퐁당'은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 TV 앱, 또는 PC 웹 fondant.kr에서 만날 수 있다. 성경 초성퀴즈, 말씀 암송 등 다양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CGNTV 홈페이지, 퐁당 카카오톡 채널 포스트,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가정의 달을 맞아 '퐁당'에서는 5월부터 신규 키즈 콘텐츠도 선보인다. '히즈쇼 살아나는 성경동화'는 0세부터 6세까지 재미있는 그림으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총 10가지 이야기를 통해 성경 인물을 잘 알 수 있도록 제작됐다. '웬드라마 밀키웨이'는 주일학교와 학원 사이에서 갈등하는 내용 등 유초등부 아이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를 다뤘다.

카툰으로 하는 큐티 '갯툰'은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그려냈다. C.S. 루이스의 책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를 모티브로 갯툰에서 제작한 '악마 수업'은 악마가 주인공 하준이를 유혹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도 최근 업로드된 영화 '털사'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로 해병 바이커가 존재를 몰랐던 9살 딸과 재회하여 겪는 삶에 큰 변화를 다루고 있다.

신앙 플렉스 한 5일 간의 MZ세대 신앙 축제 '무엇을 남겼나?'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크리스천 청년들의 신앙과 삶에 지향점을 제시하고 회복을 응원하는 영적 축제 '청년다시오펜도회 X 갯플렉스 시즌3'가 지난 29일 5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2년 1개월여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전면 해제된 지난 18일 이후 기독교계가 마련한 첫 번째 초교파 크리스천 청년 집회로 기록된 이번 행사는 앞으로의 청년 사역 방향에 적잖은 의미를 남겼다.

가장 중요한 점은 집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잔뜩 위축돼 있던 청년들이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일깨우고 서로의 신앙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정지민(27·울산갈릴리교회)씨는 친구와 함께 28일 집회 현장을 찾았다. 그는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참여했던 청년 집회에 직접 참석해보고 싶어 휴가를 내고 오전 일찍 서울엘 KTX를 탔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기에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월요일만 되면 눈치를 봐야했던 날이 생생하다"며 "오늘만큼은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집회가 진행된 5일 동안 전국 2700여개 교회에선 저마다의 공간을 마련해 온라인으로 영적 교제를 나눴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다'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집회를 통해 깨닫는다'는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온라인으

로 집회에 참여한 한 청년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려 왔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집회는 서서히 마무리됐지만 기도의 열기는 좀처럼 식을 줄 몰랐다. 집회가 열린 서울 강동구 오륜교회(김은호 목사) 예배당 입구에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들을 뒤로 하고 삼삼오오 동글게 모인 이들의 기도 소리가 로비를 채웠다. 집회에서 받은 은혜를 품고 자신들만의 기도 자리를 만든 청년들이었다. 최미현(32·오륜교회)씨는 "현장에서 들은 메시지를 서로의 시각으로 공유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식어가던 예배자'에서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예배자'로의 전환을 바라보게 됐다"고 고백했다. 함께 기도하던 이동현(29·오륜교회)씨는 "줌(zoom)으로 참여하던 것에서 현장으로 나와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간절히 바라던 '신앙과 예배의 회복'이 가까워지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위드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제도약을 꾸꾸고 있는 캠퍼스 현장에서도 청년 사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평가가 나온다. 예수전도단에선 총북 중추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전남 광주 조선대 등 동아리방에 모여 이번 집회를 참여했다. 박창현(예수전도단 한국대학사역) 간사는 "위기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세대가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닫는 한 주였다"며 "더블

어 캠퍼스 선교단체가 한국교회와 함께 호흡하고 연대할 수 있어 기뻐다"고 전했다.

제주 지역에선 이번 집회를 기점으로 청년 연합수련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문경욱(제주누리교회) 목사는 "제주도 청년연합 사역의 중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삼다청' 중심으로 코로나19 직전에 500여명이 청년들이 모여 예배하는 역사적 인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의 감동을 올해 다시 재현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은혜와 교제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이웃을 위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청년들이 마음을 모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집회 때마다 뇌병변장애인 작사가 이석희 형제,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미혼모, 발달장애를 앓는 김세민 형제 등을 위한 '사랑의헌금'이 모였고 청년들의 사랑은 5일 만에 1억5000만원이라는 사랑의 물결이 됐다.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 청년 연합집회가 사라지다시피 한 상황에서 MZ세대들이 오랜만에 함께 수련회를 한 셈"이라며 "이번 집회가 이 시대의 MZ세대 크리스천과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실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전 세대의 신앙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맡겨진 한국교회의 사명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회가 가장 잘한 사역 34% “무료 급식” 1순위

우리나라 국민은 한국교회의 사회봉사 활동 중 '무료급식 제공'(34.1%)을 가장 잘하는 사역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거노인, 빈곤층 돕기'(25.2%), '지역 청소년을 위해 교회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13.4%) '지역민을 위한 교회공간 개방'(1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어린이 집,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등 영유아 돌봄활동'(10.8%) '지역주민을 위한 카페, 도서관, 상담센터, 운동시설 등 운영'(8.6%) '장애인 돕기'(7.5%)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를 돕는 활동'(6.9%)도 한국교회가 칭찬받은 만한 사역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회의 봉사와 구제 사역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다. 34년 동안 서

울 청량리에서 노숙인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무료급식의 상징이 된 밥퍼나눔운동본부(밥퍼)가 대표적인 예다. 다 일공동체는 1988년 청량리역 광장에서 노숙인에게 라면을 끓여 나눠준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매일 1000여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는 26일 "처음 밥퍼 사역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기독교 구제 사역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성장한 밥퍼 사역이 지금은 봉사자의 80%가 비기독교인일 정도로 나눔의 모범이 돼 감사하다"고 했다. 최 대표는 이어 "예수님께서 사역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일이 예수님께 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이 땅에 굶주린 이가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사역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교회에 대한 긍정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성돈 실천신대 교수는 "국민은 같은 동네에서 선한 일을 하는 지역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경험한다"면서 "설문조사 결과에 나온 활동들은 지역주민들이 한 번쯤은 직접 보거나 참여했을 사역이다. 국민은 매스컴에 나타난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동네 교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경험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국민은 교회의 진심을 알고 있다. 좀 더 마음을 열고 지역과 소통하고 섬기면 한국교회에 희망은 있다"고 했다.

선교의 창 (192)



송종목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누룩처럼 확장되고 있는 이슬람

한인 세계선교 대표자 대회가 있었다. KWMMF(Korean World Missionary Fellowship)가 주최 한 본 대회는 "2022년 4/18(월) ~ 21일(목)까지 OC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린 것이다. 참석한 사람들은 주최기관의 임원진과 교단 및 선교단체 대표 그리고 56개국에서 온 164명의 선임 선교사들이었다. 주제는 "코로나 시대의 선교전략"이었다. 이른 아침에는 경건회, 오전에는 특강, 오후에는 발제 및 토론, 저녁에는 사역보고 및 말씀 집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엔데믹(Endemic)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여러 선교사들과 분야별 선교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략을 모색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의의가 크다. 이제 대회는 끝났다. 사역자들은 자기 터전으로 귀임했다. 하지만 집회시 세우신 종들을 통해 외쳐졌던 성령의 음성은 지금도 참석자들의 귀전에 맴돌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주위에 알리고 결의했던 선언문 내용을 실천으로 옮겨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마침은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이다.

1. KWMMF 역사

KWMMF는 1977년 몇몇 선

교사들이 서로 문안을 주고받으며 "한국 선교사 친교회"란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1978년에는 한국 선교사 동지회, 1982년, 한국 선교사 친교회로 이름을 다시 바꾸고 필리핀에서 제1회 선교사 대회를

개최했다. 2회 대회는 1984년 태국 방콕, 3회 대회는 1986년 미국 (LA), 4회 대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했다. 제5회 대회는 1988년 7월 KWMMF가 시카고 휘튼대에서 개최한 제1차 세계 한인선교 대회 때 선교사 대회를 열었다. 제6회 대회는 1991년, 싱가포르에서 열렸으며 제7회 대회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이름을 WKMMF로 바꾸었다. 그리고 2011년, 캄보디아에서 한인 선교사 지도력 개발 회의와 중앙총회에서 지금의 명칭인 한인 세계 선교사회(KWMMF)로 변경했다(KWMMF 2016 자료). 본 기관은 현재

4년마다 선교사 대회를 개최하며 1995년부터는 대회 중간인 2년 차에 "선교사 지도력 개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아무튼 KWMMF는 명실공히 한국인의 집단주의적 사고가 만들어낸 세계 유일의 선교사들 네트워크 공동체이다.

2. LA SUMMIT CONFERENCE 소개

역병과 전쟁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5대양 6 대륙에서 선교사들이 LA로 모였다. 대부분 25~30년 전후의 선교적 관록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낯선 오지에서 고독하게 투쟁한 모습들이 얼굴에 묻어났다. 희끗희끗 반백의 머리카락과 주름살들은 저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대변해 주고 있었다. 비록 지인이든 처음 만난 자든 저들은 그리스도의 정병들로 함께 있는

게 나라와 종족 등을 연구하여 선교 지수를 파악할 때 선교가 더욱 전략적으로 발전하고 성숙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대흥 KWMA 사무총장은 Target2030을 언급한 가운데 평신도 선교 자원 운동을 통해 Mission-minded Christian을 일으켜 세워야 함을 역설했다. 여타 많은 강의와 사역 소개, 경건회 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났다. 무엇보다 은혜교회에서 전심으로 섬겨주며 선교사 일동은 큰 감동을 받았다. 역시 Missional Church는 다르다이다.

3. LA SUMMIT CONFERENCE대회 선언문

하나, 우리는 세계 선교를 위한 한인 선교사로서 우리 고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

직면하여 창의적 확장성, 의도적 개방성, 관계적 공동체성을 발전시켜 미래 선교를 지속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각국 선교 현장의 선교 지수(Mission Index)를 연구 조사하여 효과적인 선교 정책을 수립하고 남은 과업을 완수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코로나 이후 선교의 근본적인 전환과 위기 극복을 위해 세계 각국의 선교 지수를 축적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지수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대의 선교 전략을 모색하고 적용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당면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과제를 직시하고 시대적 전략을 수립하여 미래 선교를 창의적으로 준비할 것을 선언한다. 시대적으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

하나, 우리는 KWMMF 자체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와 자료 공유를 통해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에 기여할 것을 선언한다. 이를 위해 IT, 영상, 미디어, 전략, R&D, 홍보팀을 조직하여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맺음말

KWMMF는 올해로 45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이름 안에 23,000여 명의 한인 선교사가 있다. 그간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왔다. 선교역사가 이자 전략가인 랄프 윈터(Ralph D. Winter)는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독특한 점 가운데 하나로 한인 세계선교사회(KWMMF)를 꼽았다. 세계선교 역사에서 선교사를 보내는 교단과 단체 연합회는 있었지만, 선교사들끼리 모여 세계적인 연합회를 만든 일은 없었다고 했다. 그가 언급한 것처럼 본 단체는 한인 세계선교 역사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금 번에 KWMMF 2022 LA SUMMIT CONFERENCE는 역사의 전환기에 열렸다. 때가 때인 만큼 KWMA(한국 세계선교협의회, 한국), KWMC(기독교 한인 세계선교협의회, 북미 주), KIMNET(세계선교 동역 네트워크) 등 각 기관의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 했다. 아무튼 지금은 세상이 혁명적으로 변하는 시대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인 세계 선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시대적 요청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 그것은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비록 이 결의가 완전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행동으로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선교 모멘텀(Momentum)이 되어 세계 각국에 선교 부흥이 일어나길 기원한다. KWMMF의 존재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jsong007@hanmail.net

위기는 새로운 기회이다.
하수(下手)는 파도에 휩쓸리나 고수(高手)는 파도를 탄다.
우리는 선언문을 되뇌이며 행동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한다.

자체가 위료요 힘이였다. 4/18일 개최 첫번째 날 저녁 한기홍 목사는 간증과 함께 말씀을 선포했다. 코로나 시대 홀로 마이크만 보며 설교를 한 기분을 어찌 표현해야 할까를 물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밤 송대근 목사는 사할린의 조덕순 선교사를 소개했다. 영혼 사상에 대한 그녀의 열심과 단순함, 투박함은 모든 청중들에게 큰 파문을 일으켰다. 낮 시간에는 여러 강의가 있었다. 몽골의 이대학 선교사는 몽골 선교 지수를 연구해 발표했다. 그는 전 세

신 네트워크와 선교적 리더십을 발전시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용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세계적인 위기 앞에서 대응 리더십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며, 글로벌 리더십과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새로운 도전과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선교의 내외적인 위기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선교적 역량을 키움으로써 지속 가능한 미래 선교를 준비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선교의 내부적인 위기를 직시하여, 신학적, 구조적, 전략적 변화를 도모하고, 선교의 외부 환경 변화에

고 선교적 자산이 결핍되는 현상에 직면하여 부정적 에너지를 선교의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팀 선교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통섭적 선교를 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인프라를 선교에 적극 활용하고, MZ 세대의 선교 동원을 통해 차세대 선교 전략을 수립할 것을 선언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면과 비대면, 가상공간으로 선교의 지경을 확장하고, 온라인 공간에 선교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차세대 선교를 지속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②7 바울을 심문한 벨릭스 총독 소개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천부장과 백부장의 호위를 받으며 가이사라(Caesarea)로 이송됩니다.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Claudius Lysias)는 유대인의 폭동을 막고, 로마 시민권자 바울을 보호할 의도로 이송을 결정했습니다. 유대인 폭동은 당시 로마 정부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천부장은 자신의 친서(親書)와 함께 바울을 총독 벨릭스(Felix)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Felix)를 만납니다. 벨릭스는 사도행전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행23:24,26; 행24:3,22,24,25,27; 행25:14). 벨릭스는 원래 글라우디오 황제 어머니 안토니아 집안의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는 노예에서 총독까지 된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그의 출세는 글라우디오 황제(행18:2) 총애를 받았던 그의 형 팔라스(Pallas) 덕분입니다. 척 스윈들은 팔라스(Pallas)가 글라우디오와 네로황제의 재무장관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 총독 벤티디우스 쿠마누스(Ventidius Cumanus)가 유대인의 미움을 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대 지도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갈등을 겪자

로마에서 그를 불러 살피는 중에 또 다른 죄를 발견하고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를 해임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 아들 요나단은 쿠마누스 후임으로 벨릭스(Marcus Antonius Felix)를 요청해 벨릭스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벨릭스의 뜻은 '행복'인데

그는 탐욕 때문에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벨릭스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암살자까지 동원한 잔인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그는 탐욕의 화신이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벨릭스가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며 '목적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벨릭스는 악명 높은 총독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 후에 유대를 다스렸던 알

비누스(Albinus)총독은 전임자 벨릭스가 뇌물을 받고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 풀어주었다고 불평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역사자료가 벨릭스의 부정부패에 대해 의견이 일치합니다. 성경은 벨릭스가 바울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알면서도 바울에게 뇌물을

노예에서 총독까지 된 입지전적 인물, '피의 대학살'을 통해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한 사건으로 악명 높아

기대하고 그를 계속 붙잡아 두었다고 기록합니다(행24:26). 이는 벨릭스에 대한 역사적 기록과 일치하고, 그의 인간 됨됨이를 잘 보여 주는 말씀입니다.

벨릭스는 양심이 없는 기회주의자였다고 척 스윈들은 강조합니다. 벨릭스는 치안을 위한다는 강도로 분류된 400명을 죽입니다. 아울러 벨릭스는 '시카리(Sicarii)'라는 강도단에 의해 대제사장 요나단이 살해된 사건 배후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요나단이 벨릭스가 총독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었습니다. 벨릭스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예 출신 벨릭스는 3명의 왕실 출신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폴란드 출신 조니 펠릭사(Zony Feliksa)는 "벨릭스의 아내들(The wives of

Felix)"이라는 논문에서 벨릭스의 세 아내를 설명합니다. 그는 타키투스 자료를 인용하며 벨릭스의 첫 아내는 톨레미왕조의 마지막 군주 클레오파트라 7세의 손녀(혹은 증손녀) 모레타니아의 드루실라(Drusilla of Mauretania)라고 합니다.

벨릭스 둘째 아내는 헤롯대제의 손자인 헤롯 아그립마 1세의 막내딸이자 헤롯 아그립마 2세의 누이동생 드루실라입니다(행24:24). 헤롯 아그립마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처형

했고 베드로를 투옥한 사람이었고, 가이사라 극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연설을 하고 하나님 진노로 죽었습니다(행12장). 헤롯 아그립마 1세는 세 딸을 두었는데 둘째 딸이 베니게, 막내가 드루실라입니다. 드루실라의 언니 베니게가 친형제 아그립마 2세(행25:23)의 아내입니다. 권력을 탐했던 헤롯 가문의 얽히고설킨 복잡한 관계입니다.

미모와 발달한 성격으로 유명했던 드루실라는 어린 나이에 소아시아의 콤파게네(Commagene) 왕자 에피파네스(Epiphanes)와 약혼했고, 15세에 수리아의 작은 왕국 에메사(Emesa)의 아시수스(Azizus)왕과 결혼했습니다. 벨릭스는 결혼한 드루실라에

반해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드루실라는 아시수스왕과 이혼하고 벨릭스의 둘째 부인이 되었습니다. 벨릭스가 유대총독으로 부임 전 사마리아 사령관 신분 시절에 드루실라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드루실라는 유대의 정세에 밝았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재판할 때에 드루실라는 유대교인과 그리스도교인의 분쟁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고, 아마도 바울에 대한 산헤드린 지도자들의 분노와 고소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남편 벨릭스에게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 줬을 것입니다(행24:22). 그래서 벨릭스는 바울의 결백을 알았습니다.

당시 벨릭스는 '피의 대학살'을 통해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한 사건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탐욕과 폭정을 일삼던 벨릭스는 결국 유대인 지도자들의 진정서가 황제에게 전달되어 총독에서 물러나 로마로 소환당했다가 폼페이로 유배당했습니다. 성공회 지도자 F. W. 파라(Farrar)는 "벨릭스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사악했으며, 모든 시대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드루실라와 벨릭스는 아들 아그립마를 낳았다고 합니다. 벨릭스, 드루실라 그리고 아들 아그립마는 별장의 도시 폼페이로 유배당했습니다. 경관, 맑은 공기, 그리고 좋은 시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휴양지였던 폼페이로 유배된 것도 형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폼페이 화산이 터졌습니다. AD 79년 8월 24일에 벨릭스 일가족은 화산에 덮여 몰살당했습니다.

벨릭스의 형 팔라스는 글라우디오 이후 네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도 계속 영향력을 유지했고, 이 때문에 벨릭스는 로마로 소환된 이후에도 큰 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간신히 형벌은 면했지만 벨릭스와 드루실라는 배수비오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다가 화산의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 아래 결국 아들과 함께 매몰되었다고 전해집니다. chap1207@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월 늘 기억해야 할 은혜 (민 9:1-3)93장

출애굽 후 다음 해 1월 1일에 시내산에서 성막 완공 및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두 주 후에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대속의 은혜'로 죽어야 할 사람들을 대신하여 흠 없는 짐승이 죽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의 시간 속에도 새겨 놓으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 2세대, 그리고 그 후세대들

도 정한 날이 되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유월절에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오셨기에 우리의 매일은 '유월절' 이어야 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화 인구를 계수하라(민 1:1-4)380장

두 번째 유월절 후 2월 1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십니다. 이십 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파악합니다. 즉, 국방부 병력조사입니다. 각 지파대로 계수하니 장정만 육십만 삼천오백오십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레위인과 사람들은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영적인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한 사람들의 숫자를 알고 계시듯, 영적인 출애굽을 한 사람들을 구원명단에서 누락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레위인은 구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정확하게 구별해서 드러야 합니다. 시간, 물질, 재능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러야 합니다

수 예수님 중심으로(민 2:1-2)532장

각 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방향에 배치되었고, 성소로부터 약 8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진을 쳤습니다. 각 지파는 각 방향마다 그 대표 지파(유다, 르우벤, 에브라임, 단 지파 등)의 깃발을 세웠습니다.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 각 지파가 배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헤가 뜨는 동편을 향하여 진을 치게 하고, 행진할 때 선두에 서게 하십니다. 유

다 지파는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나실 지파입니다. 각 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배치되었듯, 우리의 삶에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야 하며 그분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얹는 것이 교만이며, 가장 큰 죄악입니다.

목 레위자손의 임무(민 3:5-10)595장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시중을 들며, 회막에서 성물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구별하신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의 남자를 다 계수해 보면 이만 이천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모든 이스라엘의 일 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숫자인 이만 이천이백칠십삼 명에 버금가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의 차이로 속전을 계산합니다. 성도는 거룩하게 구

별된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거룩한 직분을 맡기셨듯이 오늘에는 그 직분을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과 하나님의 '연결점'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레위인들로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금 부정한 자들(민 5:1-4)426장

'부정한 사람에 대한 치리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 나병환자, 유출증 환자, 시체에 접촉한 자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진영 밖으로 내 보내어 진영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이웃에 대하여 죄를 범하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값에 오분의 일을 더 하여 치러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 조직으로 체계화시키

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거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거룩해야 합니다. 광야 길을 걸으면서 또한 가나안에서도 수많은 이방 사람들과 이방 신들을 만나게 될 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타협하거나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야 합니다.

토 나실인(민 6:1-12)213장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일정 기간이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도록 서약 된 사람입니다. 나실인 규례는 포도주를 금하며, 포도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를 길러야 하며, 시체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시체를 가까이하면 정결케 하는 일곱째 날에 머리카락을 밀고, 여덟째 날에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 드리는 날 수를 다시 정하게 됩니다. 규례대로 자신을 나실인으

로 드린 자는 힘을 다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성도는 나실인들입니다. 나실인에게는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은 포도주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은 둔다면, 우리는 늘 요동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십시오.

교회음악 이야기(12)



윤임상 교수
(월드미선대학교대학원)

작곡가 나운영, 그리고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노래와 피아노를 위한 멜로디를 주의 깊게 읽어 보았습니다. 몇 개의 한국식 반음계로 이루어진 5음 음조로 쓰여진 멜로디 곡선들로 인해 멜로디들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노래 성격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반주 또한 그러했습니다. 당신은 면학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어와 서양 음악기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인들에게 한국 음악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당신이 파리예술학교 우리 학과의 학생으로 입학하게 된 것을 기꺼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1953. 9. 24. - 울리비에 메시앙 (파리국립음악원 음악분석 교수)"

위 글은 20세기 유명한 프랑스 출신의 현대음악 작곡가 올리비아 메시앙(Olivier Eugène Prosper Charles Messiaen, 1908-1992)이 1953년 9월 어느날 파리 예술음악학교 작곡과에 지원한 나운영에게 그가 제출한 작품 중 "아흔 아홉"이란 곡을 보고 평가한 글을 "나운영 기념 사업회" 사이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20세기 초부터 서양음악이 한국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이래 초기 대표적인 교회음악 작곡가들 중 한 인물을 꼽으라면 나운영 선생님(1922-1993)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일제 강점기, 6.25 전쟁의 혼란스러운 한국의 역사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며 음악의 재

있던 1953년 5월 3일 주일, 당시 나운영 선생님은 전쟁으로 인해 부산으로 내려가서 피난생활을 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 곳 해군 정훈학교 채플(Chapel)에서 찬양을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채플에 담임으로 섬기고 계신 분이 정달민 목사님(후에 초대 해군 군종감이 되심)이셨는데 그가 나운영 선생님에게 "외국의 명성가들도 좋지만 한국인이 만든 성가를 만들어 한국의 정서가 깃든 음악을 만들면 어떨겠는가?" 라는 주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피난 보따리로 가득찬 4식구가 비좁게 지내고 단칸방으로 돌아온 그는 그 날 밤 아픔과 고통속에 있는 우리 민족에게 시편 23편에 나타

"6.25 전쟁으로 황폐되고 암울했던 배경속에서 생수 마시는 법을 우리 민족에게 소중한 메시지로 주셨던 작품"

능을 발견하고 일본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좀 더 깊은 음악학문 연구를 위해 프랑스 유학을 결정하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셋째 형인 나운영(경성제대 의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 조교수)이 6.25때 북한군에 의해 납북됨으로 인해 가족이 연좌죄에 적용되어 파리 국립음악원으로 부터 공식적으로 입학할 허락받았지만 유학이 좌절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적인 우리 전통 음악과 서양음악을 통합하여 여러 찬송가 시편가들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교회음악 발전에 좋은 영향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작품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성가곡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로 이 곡은 오늘날 까지 교회에서 많이 애창되고있는 극히 한국적인 시편 성가곡입니다. 한 편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내면에 담긴 깊은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곡은 우리 민족이 전쟁으로 인해 황폐되고 암울했던 배경속에서 하나님이 나운영 작곡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삶이 평탄하든 험하든 상관 없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생수를 마시는 법을 우리 민족에게 배우게 한 소중한 메시지를 주셨던 작품으로 필자에게 다가옵니다.

"나운영 기념 사업회"에 나타난 기록에 의하면 그 때가 6.25전쟁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난 하나님의 위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감을 받은대로 오선지에 멜로디를 써 내려갔습니다. 4분이 채 못되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곡을 완성짓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곡은 한번도 수정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쥬세피 베르디 Giuseppe Fortunino Francesco Verdi, 1813-1901) 가 오페라 '나부코(Nabucco)'를 만들어 자신의 민족이 오스트리아로부터의 정치적 속국이 지속되고 있는 아픔을 그리며 이 태리적인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는 중세 독일의 영웅 서사시 니벨룽겐의 노래에 빗대어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걸작이라는 '니벨룽겐의 반지(Der Ring des Nibelungen)'를 만들어 독일의 민족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본 윌리엄스(Ralph Vaughan Williams, 1872-1958)는 2차 대전의 전운이 감돌자 1차 대전의 참전 용사였던 본인이 또 본인의 조국인 영국이 전쟁으로 인한 큰 아픔을 겪었던 슬픔을 기억하며 평화를 호소하는 칸타타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Dona Nobis Pacem)'라는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자기 민족의 열과 혼을 기반으로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기발하게 사용하여 자신들의 언어와, (16면으로 계속)



"사람은 기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파랑장 준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푸른 바다에서 푸른 호수로 간 총회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맞닿는 평화로운 총회” 를 꿈꾸며

지난 시간들이 긴 꿈을 쫓아 왔습니다. 팬데믹으로 잃어버렸던 시간들, 46회 총회준비로 정신없이 구상하고 진행했던 시간들,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총회원들을 실제로 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카고를 중심한 중부노회가 20년 만에 총회를 호스트합니다. 중부노회 임원들은 팬데믹으로 지친 총회원들을 잘 모시고 싶은 마음과 팬데믹 이후 솟아오른 숙박 비용 때문인지, 맥시코 컨벤션에서의 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중부노회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신데 어쩌다가 저에게도 총회준비위원장이란 막중한 임무가 떠밀려 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공적 직책들을 상당히 고사해 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큰 임무를 나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 저에게 총회준비를 맡겨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팬데믹으로 쉬는 것도 조심스러웠던 2년 여의 시간들, 유배지처럼 제한되었던 활동공간들, 그렇게 심적인 압박감 속에 사역하시는 총회원들께



말았습니다.

아, 그 때의 그 허탈함이란... 게다가 호텔 예약금으로 지불했던 큰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씨름해야 할지 암담했습니다. 모든 총회준비위원들은 상실감에 빠졌고, 줌(Zoom)으로 영상 총회를 하자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회 임원들과 많은 총회원들이 대면총회를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허리를 동여매고 시카고에서의 총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미국 내의 숙박비들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 있습니다. 저렴한 등록비로 총회를 치르기 위하여 3성급 숙박시설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곳에서 총회를 유지

님들도 총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봉사 자원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사실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고집스러운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기쁨과 웃음과 찬양이 넘치는 축제같은 총회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총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총회가 안전하고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매일 아침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속에 밤을 새워서 총회를 기획하고 구상하였고, 작은 일 하나에도 수많은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시뮬레이

“콧대만큼 높음이 착하고 겸손함으로...”

쉽고 회복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총회원들을 위해서 저렴한 등록비로 총회를 준비해 보자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회장과 총준위원들이 한 마음을 모아 주셨습니다.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맞닿는 평화로운 총회” 를 꿈꾸며 총회를 준비했습니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는 세상 일이지만, 누가 총회 모임을 준비한 경험과 아이디어가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세계는 팬데믹으로 이동이 제한되어 있고, 코비드가 어떤 얼굴로 다시 나타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총회를 준비했습니다. 열대의 바람과 태양의 열기로 움츠러들었던 몸의 세포들을 깨우기를 기대하였고, 팀 텔러(Tim Teller) 목사님의 세미나를 통해서 영혼의 세포도 깨워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오미크론이 퍼지면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상상으로 끝나고

해도 등록비 인상은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 총회를 치른다면 답답한 총회원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며 여러 호텔들과 협상을 하였고, 총회를 도와 줄 후원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아,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호텔은 당신들이 원하는 수준의 호텔이 아닙니다. 저쪽에 위치한 호텔에 가 보세요” 라며 콧대만큼 높은 가격을 부르던 그 유명호텔이 착한 가격으로 숙박비를 겸손하게 낮추어 주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목사님들, 오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들 부부들의 쉽고 회복을 위해서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선포하듯 이 던진 우리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시일만으로 후원자들을 보내 주셔서 꽤 넉넉한 마음으로 총회를 준비할 수 있었으며, 중부노회 목사

선을 해 보다가 밤을 꼬박 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총회원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생각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에, 우리 모든 총준위원들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이 총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총회가 곧 시작됩니다. 46회 총회가 뜨겁고 푸른 바다위를 잠시 비행하다가 싱그러움 녹음과 푸른 호수가 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겨우 2개월여의 짧은 시간으로 총회를 준비하였기에 생각지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였고, 하나님의 종이 힘을 얻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총회가 되면 그것으로 좋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푸른 호수와 푸른 하늘이 맞닿은 시카고 총회에서 여러분을 뵈기를 원합니다.

강민국 목사 (미시시피한인교회, KAPC 46회 총회 준비위원장)

신교 편지

우크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사 41:10)

주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저는 지난 2/16일에 우크라이나를 떠나야 했습니다. 2/12일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의 위기가 있으니 우크라이나에 여행금지 4단계(불이행 시 여권 말소시킴)를 발령하였고 계획되었던 일정 보다 일찍 미국으로 갔습니다. 떠날 때 곧 돌아오리라 생각하고 (3/5일 복귀 표 예매) 겨울 옷이 들은 큰 가방 1개 작은 가방 2개만 들고 출국했고 체르니히우 교회와 성도들을 두고 저회만 떠나는 것이 많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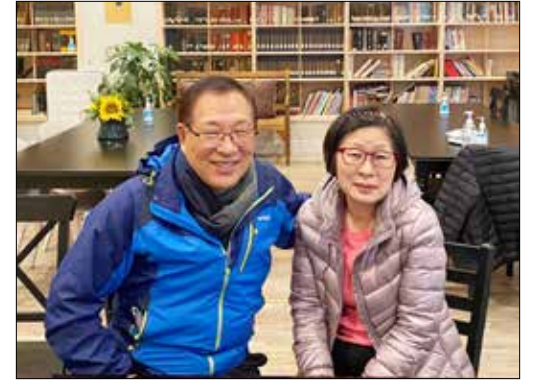
저회의 미국 첫 방문은 아에타 대표 김의원 총장님이 계시는 워싱턴으로 갔었습니다. 이렇게 뉴욕과 워싱턴에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터에서 왔다는 이유로(전쟁은 2월 24일에 발발) 여러 교회들과 지인들이 초청하여 선교보고 및 기도회를 인도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뉴욕에 갔을때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며 우크라이나에서 동역했던 송요한 목사님(퀸즈장로교회 러시아부)이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그 목사님 덕분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의 첫 목사 안수를 줬던 변일례씨 목사님(사마르칸트 대일교회 은퇴)과의 만남과

녀)와 나타샤(7자녀중 한명 징병), 스베타(교회 이웃, 열쇠 맡김), 안젤라(아버지와 함께 폴란드로 떠남), 야로센코(외대 행정담당), 마리아(젊은 엄마, 전도대상자), 레나(한때 교회서기), 레나 사모(고 뽀뜨르 목사 부인) 등입니다. 그리고 왈로자(6자녀중 안드레는 징병으로 우크라이나에 남음)는 루마니아로, 알렉 목사(사모와 6자녀 모두 떠나고 혼자 남음) 등과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회 사택은 수도 키이우에 있고 자동차는 다니엘센타(윤상수 선교사)에 두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멘선교회(GMAN, 김정환 선교사)에서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을 위해 ‘오병이어 우크라이나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어 저의 소개로 우크라이나 56 가정 중 우크라이나에 있거나 국경에서 피난민 사역하는 10 가정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분들에게 빵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빵 굽는 기계를 전달하는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우크라이나 국경과 맞닿고 있는 국가로 가서 피난민을 도울 예정입니다. 그리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패한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제가 개척한 사마르칸트 잘린교회 2대 한일과 목사님(은퇴) 딸 안젤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님과 사모님과는 28년 만에 만났습니다. 젊은 날 서울 남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섬겼었는데, 비록 2년 선배이나 옛 친구처럼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에 2주간 갔다 올 수 있었던 것은 아에타 뉴욕 총회 때에 우크라이나로 바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알고 아에타 인준위원장인 저에게 아마존 성경대학교를 인준 심사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마나우스에서 마우에스에 가는데 만해도 배로 16시간이 소요되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아마존 강변 따라 많은 목회자들이 세워져 있으나 대부분 신학교를 다니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어 이들을 위해 2018년부터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서도 두고 온 우크라이나 성도들과 매일 SNS로 소통해 왔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체르니히우를 점령했을 때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없게 이웃의 자전거로 발전기를 돌려 충전하여 연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성도들은 저회가 떠난 후 바로 전쟁 발발 전에 피난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저회가 매회 1,000그리브나(약 4만원)씩 현지은행 계좌로 여러 번 보내는데, 지금까지 보내준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아(3자

고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 졸업과 입학의 위해 중앙아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소개합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나 주문진 감리교회에서 세례 받았고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에 대학생선교회(CCC) 활동을 하면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고 직장 다닐 때에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나와 신림 소망교회를 개척한 후에 GMS에서 훈련받고 1996년에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 파송받아 교회개척과 병원사역, 신학교 강의 및 리서치 사역을 해 오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두 번에 걸쳐 추방을 맞이했습니다. 다시 2011년에 키이우의 신학교 책임자로 부임했고 그 후에 키이우 주변 현지 교회들을 순회 및 전도사역을 하다 2019년부터 체르니히우(키이우에서 북쪽 150Km, 벨라루스에서 남쪽으로 60Km)에서 교회 사역과 문화사역, 강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초토화된 체르니히우 시는 인구 30만 명으로 1,300년 이상 되는 고도(古都)로 우크라이나에서 정교회 성향이 가장 강한 우크라이나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아름다운 기독교적인 도시입니다.

(16면으로 계속)



36th Anniversary

달라스 캠퍼스 편, 입학 안내

Dallas Site에 오픈하는 과정

Dallas 지역에서 등록하는 학생들을 위한 I-20 직접 발행

ESL Program ESL, Aviation English

Pilot Certificate(FAA) 조종사라이선스, 정비사라이선스

Diploma 신학, 기독교교육, 크리스찬카운셀링, 선교, 리더십

Degree Programs 학위과정

B.A. 신학, 기독교교육

M.Div. 목회, 선교목회, 상담목회, 교육목회, 목사리더십

D.Min. 카운셀링, 교육, 선교, 목회신학, 목사리더십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연구원, 교환교수, 인턴십을 위한 DS-2019 자체발행
2. 직장과 사역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On-line Programs or Main Campus

국제항공 대학원 BS, MBA, Ph.D.

경영 대학원 BA, MBA, Ph.D.

국방 대학원 MBA, Ph.D.

교육 대학원 MA TESOL, MA Education, Ph.D.

리더십 대학원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상담심리 대학원 MA, Ph.D.

음악, 문화예술 대학원 MM, DMA, Ph.D.

신학 대학원 BA, M.Div, D.Min, Ph.D.

학교소개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정규대학교 인준 USDE & CHEA

•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CHEA) www.chea.org

• ABHE - Accredited Status

• 국제비즈니스 학점 인정기관 (IACBE) Educational Member.

• 국제 항공 안전협회 ISASI 회원대학교.

• NC-SARA (www.nc-sara.org) 인준대학교

• Midwest 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MIRI) 연구소



Midwest University 국제항공대학

항공 경영학사 과정

항공경영, 조종사, 정비사, 항공운항사, 승무원

FAA Certificate - 국제 조종사, 정비사 라이선스 과정

MBA - 항공 안전보안

Ph.D. - 국제항공 경영 리더십

Midwest University- Dallas

4849 Spartan Dr. Denton, TX 76207

usa@midwest.edu

www.midwest.edu (636) 327- 4645

소그룹, 큰 위험 될 수 있다!

처치리더스.컴, 마크 하웰 목사의 소그룹 형성/사역 과정 중 문제되는 5가지 요소 소개

사역단체 'The E2 Initiative'를 섬기는 마크 하웰(Mark A. Howell) 목사는 "소그룹은 때로 전혀 해가 없어 보이고 위험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큰 위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소그룹에 독이 되는 5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5 Toxic Small Group Ministry Moves).

1. 다른 소그룹 모델의 체계와 전략 등을 가져와 바꾼다

모든 소그룹에는 소그룹의 중심이 되는 모델과 체계, 그리고 버전이 있다. 이것을 무엇이냐고 부르든지 변형된 모델은 독이 될 수 있다. 리더는 소그룹 모델에 관한 좋은 책을 읽었거나, 더 좋아 보이는 콘퍼런스에 참여했다고 해도 소그룹의 체계와 전략 등을 바꾸는 일에 대해 최소한 3년 정도는 고민해야 한다.

2. 경험이 많은 리더에게 다시 시 코치 역할을 맡긴다

경험이 많은 리더에게 다시

코치의 자리를 소급해 제공하는 것은 거의 효과가 없다. 이런 조치는 때로는 소그룹 코치를 영구적으로 좋지 않게 만들

을 요구한다

이 부분은 공동체 총 리더가 되는 담임목사가 영감을 받은

모든 그룹에 공통적인 과제(캠페인 모두에게 1가지 비전을 심어주고자 하는 욕구, 모든 교인 쇄신의 필요성)를 요구할

변형모델이 독 될 수 있어, 체계와 전략 변형엔 최소3년 고민해야 리더의 코치 소급, 커리큘럼은 스스로 선택, 연구주제의 적용 연구

거나, 대부분 소그룹 리더들에게 거부할 당하게 한다. 다행스럽게도 적은 재정과 지혜로도 경험이 많은 리더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3. 도약은 그룹에 커리큘럼

결과이거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교회 캠페인의 일부일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소그룹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커리큘럼을 사용해야 하는 이러한 일은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마지막 요건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4. 소그룹의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 잘못된 사람들의 선호도를 허용한다



오래된 소그룹일수록 유익한 연구의 주제를 다루고자 한다. 하지만 꼭 적용이 중심이 될 필요는 없다. 평소 소통이 없던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영적 씨름이나 흥미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들을 먼저 다루고자 한다.

만약 평소 소통이 없던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고려한다면 주제를 선택할 때 이미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의 흥미도와 선호도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모든 것을 '그룹'이라고 부른다

만약 이런 일이 어떤 한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아마도 1만 개의 교회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다. 물론 리더는 소그룹들의 교회가 되고 싶어 할 수 있으나 리더가 수업이나 공부라고 부르는 것을 임의로 바꾸는 것은 망상이며 항상 독이 된다.

"오늘과 내일을 위한 사람의 첫 걸음"

신간 '심계명' 을 출간하며... 저자 강기봉 목사

'올라갈 때 보이지 않던 것, 내려갈 때 보이네' 라는 시인의 표현입니다.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고 나이 70줄에 들어서면서, 좀 할까 싶은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말씀이 신선하고 새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계명(출 20:1-17)이 확대되어 들어왔습니다. 심계명은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기준이라 믿고 말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

데 인생의 모든 여정 끝에 만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분임을 더 깊게 새겨 가면서, 심계명과 나, 심계명이 오늘과

하고 마지막 단계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를 M으로, 여자를 F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남자

"우리의 복 하나님의 부르심"

내일에 가지는 의미를 새롭게 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

도 여자도 싫다는 부류가 등장하면서 이들은 X로 한다고 했습니다. X로 표기된 이들이 한 감옥에 수감되어 임신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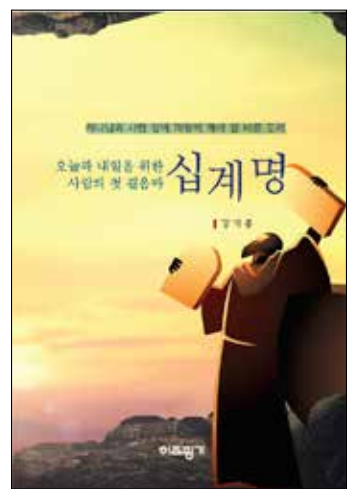
일이 생깁니다. 현대는 기준이 없이 그저 뒤엉켜 굴러간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짓밟고 군림하는 일은 수백, 수 천 년이 흘러도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그때그때 누가 더 힘이 있느냐가 옳고 그름을 판정합니다. 이런 세상은 끝이

없고 갈수록 혼란만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

씀, 그 중에서도 심계명이 다시 제 자리를 찾게 해야 합니다. 심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의 핵심을 말합니다. 심계명은 예레미야(렘31:31)도, 에스겔(겔37:24-28)도 고백하는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심계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강령(가르침)이라 하십니다(마 22:37-40). 심계명은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요, 심령에 새겨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지침입니다(요일2:7-8).

심계명은 우리를 속박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하고자 주신 하나님의



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심계명(p1-162) 다음에 '우리의 복 하나님의 부르심'(p163-217)을 실었습니다.

교회음악이야기

(14면에서 계속)

선율이 담긴 음악으로 독특하게 만들어 민족음악을 드러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운영 선생님은 당시 우리 민족의 아픔을 국악의 선율은 아니지만 전형적인 한국의 목가적 형태로 서양적 작곡기법에 우리 민족의 선율을 천재적인 영감으로 담아놓은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신학자인 영국의 스피전 목사님(Charles Haddon Spurgeon, 1834-1892)은

시편 23편을 "이 시를 새에 비유한다면 종달새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는 종달새는 노래하면서 날아오르고, 날아오르면서 노래하고, 마침 멀리 날아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노래소리는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나운영 선생님도 이 곡의 시상을 떠올리며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던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전쟁의 폐허속에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노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선율속에서 담아놓았던것 같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C. S 루이스(Clive Staples Lewis 1898-1963)의 말을 인용해 담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주된 목적은 우리가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려는데 있는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를 그의 사랑에 아주 기쁘게 머물 수 있는 대상으로 만드려는 데 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마음에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iyoon@wmu.edu

선교편지

(15면에서 계속)

1986년 르네프르 강 건너편인 체르노빌의 원전 폭발로 이 체르니히우로 많은 이주민이 들어와 살고 있고 한국인은 오직 저희 가정만 있습니다. 이 도시에는 체르니히우 주 수도로 여러 대학교들이 있어 젊은이들에게 한류를 매개로 접근한다면 점점 비종교인 혹은 무신론자로 빠져가는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에 산업시설이 빈약하여 일자리 찾으러 폴란드

와 유럽 등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도시가 파괴되어 거의 마비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점점 그 트라우마가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속히 전쟁이 종식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우크라이나가 17세기 중반 이후 1991년 독립 때까지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왔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주권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014년에 빼앗겼던 러시아 크림 인민 공화국을 다시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화국으로 돌려받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두 개 주의 200만 백성들을 친러라는

불모로 잡지 않고 그냥 그 땅에서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특히 부패한 권력자들과 위정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 국가를 사랑하며 선교 우크라이나가 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최하영/김순희 선교사

미국 동부의 대표적인 한인교회 목회자가 말하는 코로나19 시대, 예배의 정수(精髓)!

영어·중국어 번역본 출간!

那众多的敬拜者 去向何处了

DISPLACED WORSHIPPERS

그 많던 예배사는 어디로 갔을까

저자 김성국 목사 (미국 뉴욕 퀸즈장로교회 담임)

판매처: 미주크리스천신문사 718-886-4400 HISFINGERMALL.COM

Hisfinger 기독교문화출판 히즈핑거 발행